

건강하고 행복한

동행

동국대학교의료원 MAGAZINE
2017 Summer VOL.11



네의 눈망울이 창문에서
흔들림을 담고 희망을 쫓겠지
대론 고뇌와 절망으로 젖을지도 몰라
그렇게 깊어갈 네 눈망울이 기대 돼





Prologue
여덟 살의 꿈 03

Good Doctor
빠르고 정확한 진단으로
소아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준다 04

Column_1
갑자기 우리 아이 키가 ‘쑹’, 혹시 성조숙증? 08

Column_2
머리가 아파서 학교는 자주 못 가지만
친구와는 잘 노는 우리 아이, 꾀병인가요? 10

Column_3
체질 음식으로 관리하는 아이들의 건강 관리 12

Information_1
우리 아이의 바른자세 14

Information_2
건강하고 튼튼하게 성장하는 법 16

Smart Tip
여름 휴가철 물놀이, 이것만은 알고 떠나자! 18

People
아빠하고 나하고 즐거운 캠핑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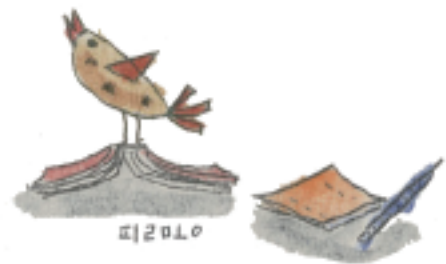
Art
그림 속에 담긴 화가의 삶과 꿈 – 박수근 22

Travel
알찬 열매가 맺히는 땅, 임실 24

Story
고객의 소리 26

Zoom in Dongguk
DUMC NEWS 27

Together
발전기금 안내 31



Child

여덟 살의 꿈

‘나는 영훈초등학교를 나와서 / 국제중학교를 나와서 / 민사고를 나와서 / 하버드대를 갈 거다 / 그래 그래서 나는 / 내가 하고 싶은 / 정말 하고 싶은 / 미용사가 될 거다’

‘여덟 살의 꿈’이란 시입니다. 실제 초등학교 1학년인 여덟 살 아이가 쓴 시지요. 미용실에 갈 때마다, 한 손에 머리카락을 살짝 당겨 쥐고 다른 한 손으로 삭 삭 삭~ 가위질을 하는 미용사가 얼마나 멋져 보였을까요. 가위 하나로 멋진 헤어스타일을 연출해내는 미용사가 여덟 살 아이의 눈엔 정말 마법사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이는 현실을 직시했네요. 자신에게 쏟아지는 기대와 타협한 게 소위 일류 학교를 나온 미용사였나 봅니다. ‘옷폰’ 현실이지요.

이 시에 뜨끔한 부모가 한둘이 아닐 겁니다. 한데 이 시를 읽은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물어 봤답니다. 그럼, 이 아이는 어떤 사람이 되면 좋을까. 아이들은 ‘미용사’라고 한 반면, 부모들은 ‘하버드대를 나온 미용사’라고 답했다는군요. 더 옷폰 일이지요.

아이를 치열한 경쟁 속으로 떠밀고픈 부모가 있을까요. 그렇다고 아이가 경쟁에서 밀리는 걸 느긋하게 바라볼 부모는 얼마나 될까요. 둘 다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그래서 경쟁의 쳇바퀴가 쉽 없이 돌아가는 거겠지요. 대한민국 부모가 한 날 한 시에 모여 ‘아이들의 경쟁을 멈추자’는 혈서라도 쓰지 않는 한 끝없이 치닫는 이 경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란 얘기가 마냥 우스갯소리로만 들리지 않는 까닭입니다.

‘당신은 부모입니까? 학부모입니까?’라는 공익광고가 있었지요. ‘학부모에서 부모로 돌아가는 길이 참된 교육의 시작’이라는 카피였지요. 경쟁사회를 부모의 책임만으로 돌린 순 없지만, 그래도 그런 경쟁에서 아이를 ‘당장’ 꺼내줄 수 있는 사람은 부모이지요. 그런 부모의 연대야말로 사회 인식이라는 큰 틀을 새로 짜는 데 큰 버팀목이 될 수 있지요.

여덟 살 아이가 여덟 살 마음으로 꿈을 꾸게 하는 것.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꿈꿀 수 있도록 하는 것. 부모로서 해줘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우린 이미 알고 있지요. 다만 흔들리지 않고 그 역할을 해낼 용기가 필요한 거지요.

아이의 행복한 삶을 위해 내야 할 용기….

빠르고 정확한 진단으로 소아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준다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보고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기 환자들은 성장기라서 정확한 진단이 더욱 중요하다.

엉뚱한 진단과 치료로 병을 키우게 되면 영원히 씻지 못할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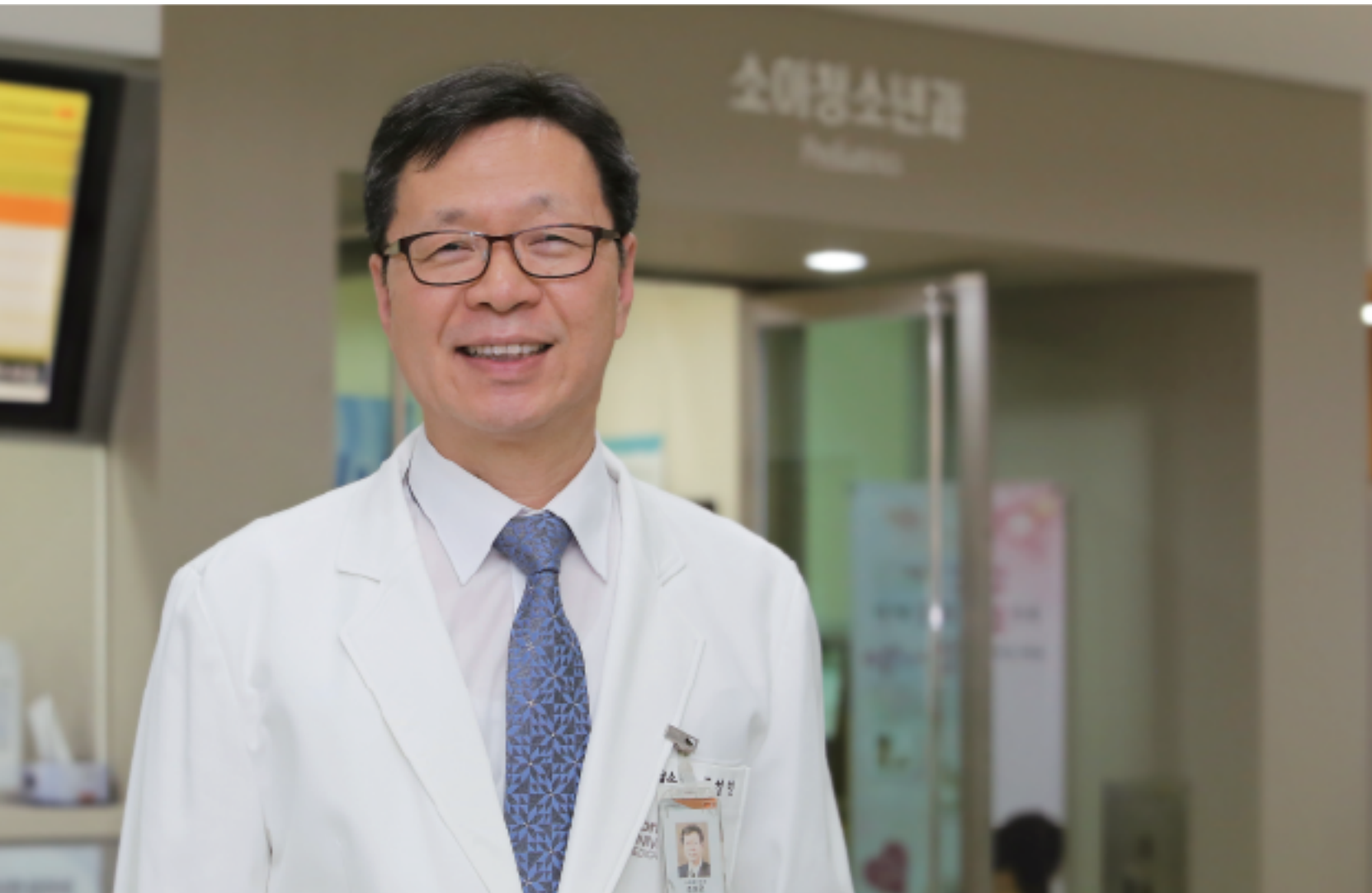
특히 뇌와 관련된 소아신경과 분야는 그 어느 분야보다 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의사의 의학적 지식과 경험, 연륜이 필요하지만 그 외에 뭐라 설명하기 어려운 '감'이라는 것이 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는 어린 환자들의 증상을 보고 원인을 잘 짚어내

치료시기를 앞당겨주는 '감이 좋은' 의사가 있다. 바로 소아청소년과 조성민 교수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소아청소년과 **조성민** 교수



소아 환자와 함께 한 30년

소아청소년과 과장인 조성민 교수는 올해로 의사가 된 지 30년이 된다. 동국대학교포항병원에서 소아과 과장으로 진료하다가 2008년 이곳 일산병원으로 온 지도 어느새 10년이 되어간다. 소아신경과 전문의로서 그가 만난 수많은 어린 환자들은 증상도 원인도 참으로 다양했다. 소아과를 찾는 환자들은 오랜 기간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의사와 환자, 보호자 사이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때로는 의사가 보호자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것 같은 마음마저 드는 게 인지상정이다. 그래서 그럴까, 성인이 된 후에도 굳이 조성민 교수에게 진료받겠다는 환자도 있다.

“포항병원에서 진료했던 환자들이 이곳 일산까지 찾아와줄 때 고마우면서도 보람을 느끼지요.” 포항의 다른 병원을 소개해주어도 굳이 조 교수에게 진료를 받겠다는 환자와 보호자를 보면 감사한 마음과 더불어 연대감마저 느껴졌다고 한다.

늘어나는 소아 두통환자

소아신경과의 환자들은 대부분 경련, 두통, 실신, 어지럼증, 발달이상으로 찾아온다.

“예전에는 소아신경과에 경련환자가 대부분이었어요. 하룻밤에도 열성경련으로 5명씩은 응급실을 찾아왔죠. 요즘은 경련 환자는 좀 줄었고 두통 환자가 많이 늘었어요.”

경련(간질)도 원인이 다양하다. 뇌출혈, 뇌손상, 기생충, 모야모야병같은 혈관질환, 뇌염 등 원인이 각양각색이다. 3년 정도 약을 써서 호전되면 그나마 다행이고, 난치성 경련은 서너 가지 약을 섞어 쓰면서 평생을 가기도 한다.

10년 전부터 두통 환자가 늘어났는데 특별한 원인은 아니고 먹고살기 힘든 시절에는 아이의 두통을 신경 쓰지 않았지만 이제는 아이들의 작은 증상에도 부모가 적극적으로 치료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을 괴롭히는 두통 역시 원인이 다양하다. 고혈압일 수도 있고, 뱃속에 종양이 있기도 하다. 진통제 먹으며 버틸 만한 증상이 결코 아니다. 두통의 특별한 원인이 발견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편두통이라고 부른다.



편두통 환자 중에는 유독 청소년이 많다. 편두통은 유전적인 요인이 크지만 '햇볕을 많이 쬔었을 때', '차만 타면', '학원 승합차만 보면' 등 악화요인도 다양하다. 조성민 교수는 편두통 예방약도 있으니 참지 말고 병원을 찾으라고 조언한다.

40, 50대 세대가 학교다닐 때 초회시간이면 픽픽 쓰러지는 아이들이 많았는데 이 증상이 실신이다. 실신은 청소년기에 유독 많은 증상이다. 빈혈로 쓰러진다고 생각하지만 실신과 빈혈은 엄연히 다르며 빈혈로 쓰러지는 실신환자는 거의 없다.

빠르고 정확한 진단이 매우 중요

올해로 의사가 된 지 30년이 된 조성민 교수는 다양한 사례를 많이 접했다. 모든 과목이 그렇겠지만 아직 성장이 다 끝나지 않은 소아 환자들은 증상을 보고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칫 골든타임을 놓치면 후유증으로 성장에 이상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번은 외래에 열이 나서 찾아온 아이가 있었어요. 얼굴에 물집이 생겨서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으며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하고 있다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단순한 물집이 아니었어요. 헤르페스균이 뇌염을 일으키기도 하니 아이 상태를 잘 봐야한다고 말해주었죠. 그날 밤 환자가 경련을 해서 응급실로 왔는데 제 예상대로 뇌염이 맞았어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뇌출혈 등 합병증도 와서 결국 뇌전증이 되었답니다.” 그만큼 빠르고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다.

또한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학회발표가 있어서 청주의 호텔에 묵고 있을 때 응급실에 두통으로 중학교 3학년 환자가 왔다고 연락이 왔다. 가슴 두근거림도 있다고 해서 혈압을 물어보니 160/100이라고 했다. 다시 측정해보라 했더니 이미 200이 넘었다. 조 교수는



갈색세포종(pheochromocytoma)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얼른 부신을 CT로 찍어보라고 했더니 바로 갈색세포종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환자를 직접 보지 않고 환자의 상태만 듣고도 정확하게 진단해낸 것이다. 부신에 생기는 암인 갈색세포종은 증상이 전혀 없다가 갑자기 혈압을 높여 두통의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두통이라는 증상을 보고 갈색세포종을 짚어내지 못하면 병이 깊어져 다른 장기로 전이되기도 한다. 의사의 날카로운 직관이 필요한 지점이다.

어른도 마찬가지이지만 어린아이들은 초기 진단을 정확하게 내려서 치료를 제때 해야 후유증을 예방하고 제대로 성장할 수 있다.

“소아청소년과는 특히 증상을 보고 빨리 진단하는 게 중요하죠. 볼 수 없는 머리와 뱃속에 들어있는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의대시절부터 교수님들이 저한테 감이 있다고 하셨는데, 증상을 보면 ‘아, 뭐가 있겠구나’, 싶고 그게 거의 맞으니 감이 좋은 편이죠.”

첫환자의 가슴아린 기억

2008년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 첫 출근하던 날, 환자 4명을 진료했다. 힘이 없고 창백한 아이가 한명 내원했다. 혹시나 싶어서 배를 만져보니 간이 부어있었다. 급성백혈병이었다. 검사해보니 역시나 예상이 맞았다.

“소아암 진단을 받고 아이 어머니가 펑펑 우셨던 기억이 납니다. 첫날 진료에서 소아암을 진단하게 되어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아픈 아이들이 빨리 치료받고 건강하게 자랐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아이들을 만난다. 하루 4명으로 시작했던 진료가 지금은 하루 40명 이상으로 늘어 진료시간 내내 부지런히 진료한다. 환자가 늘어도 바쁘다고 허투루 진료할 수는 없다. 꼼꼼하게 아이를 진찰하고 부모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정확한 진단, 빠른 치료가 이뤄지도록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다. 이렇게 쌓인 신뢰로 더 많은 환자들이 조성민 교수를 찾는다.

“엄마들은 아이에 대해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아이의 병을 정확히 알지는 못 합니다. 가령 엄마는 일주일엔 한번정도 머리가 아프대요,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아이는 일주일에 두세번 아팠을 수 있어요. 학교에서 아팠던 것을 엄마에게 말 안하고 넘어가기도 하죠. 두통을 어지럽다고 표현하는 아이들도 있구요. 너무 어리면 그 증상을 정확히 표현하지 못 합니다.”

조 교수는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면 대번 무엇 때문인지 알 수 있다. 때로는 부모도 몰랐던 증상을 캐내서 진단을 내리기도 한다. 아이가 아프면 소아청소년과를 찾아야하는 중요한 이유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아이의 증상에 대해 민감해지기는 했지만 정작 뇌종양이 다 진행되도록 모르는 경우도

있다. 소아는 가벼운 증상에서 무거운 병을 발견하기도 한다. 구토한다고 왔지만 구토의 원인도 단순한 기침부터 장염, 뇌손상까지 원인이 다양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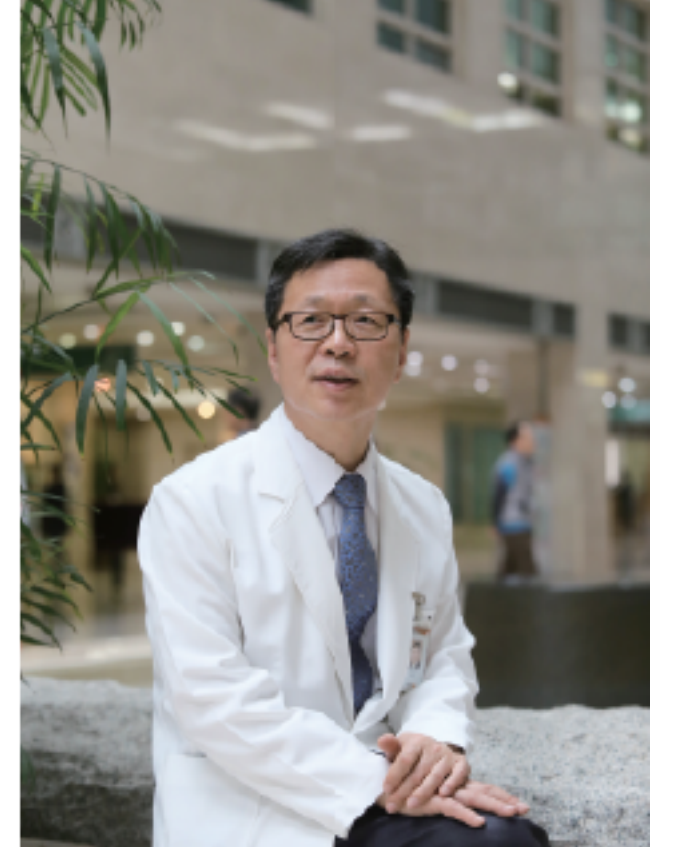
“의사가 감별해서 별거 아닌 것은 안심시켜주고 심각한 질환은 해결해주니까 큰 걱정 말고 병원으로 오시면 됩니다.”

환자의 부모까지 보듬는 마음으로

조성민 교수와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소아청소년과 의사는 아이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까지 돌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포항에 있을 때 근육병을 앓는 아이가 있었어요. 근육병 중에는 20살 되면 죽을 아이도 있어요. 하지만 부모는 어떻게 해서든 살려보려고 하죠. 안 될게 뻔한데도 노력하는 부모를 보면 잘해주고 싶는데 방법이 없어서 안타까울 뿐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치료하지는 생각을 하게 됐죠. 포항의 그 아이는 엄마가 약사라서 아이의 병이 희망이 없다는 것을 잘 알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아이를 돌보았는데 결국 죽어서 응급실로 들어왔어요. 오랫동안 그 아이를 진료했는데 그때 아이의 아버지를 처음 봤어요. 부모들, 특히 엄마들은 아이에게 전념하다가 아이를 잃게 되면 우울증을 앓거나 극단적인 상황까지 갈 수가 있어요. 아버지를 면담해서 아이 엄마를 우리 병원 약사로 취직시켰어요. 6개월 후 고맙다고 찾아왔어요. 덕분에 살고 있다고.”

조성민 교수는 수련의 사이에서는 잘 웃지 않는 엄한 교수지만 아픈 아이들과 그 부모까지 품는 속깊고 마음 따뜻한 의사다. 남들 다 치는 골프같은 취미도 없이 휴일에도 병원에 나와서 회진을 돌며 환자를 보거나 논문을 쓰며 병원에 붙어사는 그는, 천상 의사다.



“소아신경과는 혼자서 잘 할 수가 없는 과예요. 영상 의학과 선생님의 판독도 중요하고, 재활의학과의 협진도 필수이죠. 우리는 수술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여러 과와 유기적으로 어우러져야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이뤄지죠. 우리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그런 점에서 팀워크가 좋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요즈음 사람들은 공은 나의 것이요, 과는 너의 것이라고 우기기 일쑤다. 이런 고약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다른 부서와의 팀워크로 공을 돌리는 의리있는 의사를 만나, 인터뷰하는 2시간 내내 즐겁고 마음이 훈훈해졌다. ●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소아청소년과 조성민 교수

경력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병원 전공의
Clinical fellowship, MCG epilepsy center,
Medical college of Georgia, GA, USA
現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소아청소년과 과장

전문진료분야
소아신경, 뇌전증(간질), 두통, 실신, 발달지연

진료시간 오전»금 오후»월, 수
문의 소아청소년과 외래 031·961·7170

이동석 교수와 함께하는 건강한 생활

갑자기 우리 아이 키가 ‘쑥’, 혹시 성조숙증?

봄, 가을! 새 학기가 시작되고 나면 방학사이에 훌쩍 커버린 아이들을 보고 많은 부모님들은 마냥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주위에서 들려오는 성조숙증에 대한 걱정이 앞서기 때문이죠. 특히 여아의 경우 남아보다 빈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더욱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 성조숙증을 의심할 수 있나요?

여아의 경우 부모님들은 가슴의 몽아리가 만져지거나, 머리에 냄새가 난다거나, 얼굴에 여드름이 생겼다고 방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조숙증은 여아 8세 미만, 남아 9세 미만에 사춘기 2차 성징이 나타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아에서는 유방 발달, 남아에서는 고환이 커지는 것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특히 예년에 비해 성장이 빠르고 성격의 변화 등이 관찰된다면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조숙증에도 여러 종류가 있나요?

성조숙증에는 뇌의 시상하부-뇌하수체-성선 축이 조기에 활성화되어 나타나는 경우를 성선자극호르몬-의존성 성조숙증 또는 진성 성조숙증이라고 하고, 생식샘이나 부신 등의 말초조직에서 분비되는 성호르몬에 의한 성선자극호르몬-비의존성 성조숙증 또는 가성 성조숙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조숙증은 그냥 두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성조숙증은 조기에 골단이 융합되어 성인이 되었을 때 본인이 가진 표적키보다 작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체적 변화와 조기 초경 등으로 인해 환자와 가족에게 불안을 초래하고 성적 학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초경이 빠를수록 비만, 유방암, 제2형 당뇨병과 대사증후군 등의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성조숙증을 일으키는 특별한 원인이 있나요?

대부분의 경우 특정 질환을 발견할 수 없는 특발성이 높은 빈도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6세 미만 여아나 모든 남아의 경우 중추신경계 종양의 빈도가 높아 필요시 뇌MRI 검사를 통한 원인 질환의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그 외 사춘기를 앞당길 수 있는 원인으로는 비만, 환경호르몬 노출, 스트레스 등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비만은 지방세포에서 나오는 랩틴 호르몬이 지나치게 많아지고, 성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해 몸의 변화가 빨라질 수 있음으로 체중관리가 필요합니다. 또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환경 호르몬과의 접촉을 줄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진단은 어떻게 하나요?

성조숙증이 의심되면 먼저 진찰을 통해 사춘기 변화를 확인하고 골 연령을 측정합니다. 골 연령은 나이에 비해 2표준편차 이상 빠르고, 성선자극호르몬방출호르몬(GnRH) 자극검사를 시행하여 황체화 호르몬(LH)의 최대치가 5 IU/L 이상이면 진성 성조숙증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즉시 치료가 필요한가요?

진단 과정에서 사춘기의 진행이 아주 빠른 경우 치료를 바로 시작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6개월 정도 키 성장과 골 연령의 빠르기를 살펴본 뒤 치료를 결정하여도 늦지 않습니다. 치료의 목표 중 하나가 역연령과 골 연령의 균형 잡힌 성장이므로, 사춘기가 서서히 진행하거나(slowly progressive puberty) 또는 지속적으로 사춘기가 진행하지 않는 경우(unsustained puberty) 표적키에 근접한 성인기에 도달하는 경우가 있어 면밀한 관찰 후 치료를 결정하여도 늦지 않습니다.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치료는 3~4주 간격으로 성선자극호르몬 방출호르몬 작용제 주사를 맞게 되는데, 수주 이내에 성선 호르몬 분비가 사춘기 이전으로 감소하고 혈중 성장호르몬 분비도 감소하여 성장이 둔화되는 듯합니다. 하지만 골 연령 진행도 감소하여 최종 성인키는 증가하는 효과를 보입니다. 다만 성장속도가 사춘기 이전 속도보다 낮거나(4cm/yr) 성인 예측키가 아주 작을 경우 성장 호르몬 병행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치료와 함께 정기적인 평가를 요하며 3~6개월 간격으로 성 성숙도와 성장을 평가하고 골 연령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성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지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합니다. 치료를 마치는 시기는 개인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골 연령이 12세 경 까지 지속할 수 있습니다.

치료의 부작용은 없나요?

현재까지 심각한 부작용은 보고되고 있지 않습니다. 치료 중단 후 수개월내 생식샘 기능이 활성화되고 생리도 정상적인 양상을 보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성조숙증 치료 후 정상적인 임신, 출산 등에 이상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으나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



동국대학교경주병원
소아청소년과

이 동 석 교수

전문진료분야
소아내분비학(저신장, 성조숙증, 당뇨병, 갑상선질환)
소아심장학(선천성 심질환, 부정맥, 가외사기병),

진료시간
오전 » 수, 금
오후 » 월, 수

문의
소아청소년과 외래
054 · 770 · 8251

이남영 교수와 함께하는 건강한 생활

머리가 아파서 학교는 자주 못 가지만 친구와는 잘 노는 우리 아이, 꾀병인가요?

청소년기의 우울증은 사춘기의 혼한 반항기적 모습과 혼합되어 알아채기 어렵고 우울증이라고는 짐작조차 못할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기의 우울증은 성인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친구들과는 잘 지내지만 가족들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인 어머니 또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잘 발생합니다. 부모님은 자신을 이해해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멀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올해 중학교 3학년이 된 지민이는 중학교 1학년 때까지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시키지 않아도 공부도 잘하고 친구와도 잘 어울리고 활달하였는데, 작년 2학년이 된 이후로 엄마에게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많이 내기 시작했고, 머리가 아파 조퇴를 한 적도 있었다. 가을부터는 성적이 떨어졌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하면서 학교 지각도 하기 시작했다. 올해 3학년이 된 이후로 두통은 더 심해져 학교를 아예 못 간 날도 있었고, 배가 아파서 학교에서 조퇴하고 응급실에 가기도 했었는데 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하였다. 머리 아픈 것이 잦아져 병원에 가서 머리 MRI도 찍어보았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했다. 친구들과 놀 때는 잘 어울리고 노는데, 집에만 오면 엄마에게는 짜증을 심하게 내고 불같이 화를 내서 말 붙이기가 힘들었다. 엄마는 아이가 사춘기를 좀 혹독하게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여겼는데, 점점 아이와 대화가 되지 않고 자꾸 아프다고 하고 성적은 점점 떨어져 아이에 대한 걱정으로 엄마도 잠을 못 잘 정도가 되었지만, 정신건강의학과에 가게 되면 기록에 남아서 나중에 대학교 입학하거나 취직할 때 문제가 될까 염려되어 가지 못하고 있었다. 두통으로 학교를 못 가는 날이 많아지고 밤늦게까지 핸드폰 게임만 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면 싸움만 되는 일이 잦았는데, 학교에서 실시한 정서평가에서 자살 사고가 높다는 결과를 듣고 병원에 가기를 권유 받고 오게 되었다.

위 사례처럼 청소년 우울증에서는 우울함 보다는 짜증을 내거나 공격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흔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웃고 잘 지내지만 집에만 오면 짜증이 많아지나요? 아침에 깨우면 일어나기 힘들어 엄마랑 전쟁을 하면서도 밤 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거나 게임을 하나요? 말 붙이기가 눈치보이고 예민하고 짜증이 많아졌나요? 이러한 모습이 일시적이라면 곧 이전의 모습들을 되찾게 됩니다. 하지만, 한 학기가 지나고 학년이 바뀌어도 짜증이 점점 심해지고 성적은 점점 떨어지고 가족과도 점점 멀어지고 핸드폰이나 게임에 더 빠지고 반항이 심해진다면 우울증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특히 위 사례처럼 두통이나 복통, 어지러움, 현기증, 소화 불량 등의 신체적인 증상이 나타나는데, 검사를 해도 뚜렷한 이상은 없다고 하여 심지어 꾀병은 아닌지 의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기에 주로 나타나는 우울증의 증상으로 이런 증상들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우울증일 수 있습니다.

- 화가 나고 짜증이 난다. 화가 나면 참기가 어렵다.
- 슬프고 불안한 감정이 계속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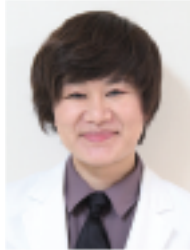


- 예전에 즐거워했던 일들에 더 이상 관심이 없다.
- 자신과 세상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
- 집중하기가 힘들다. 성적이 떨어진다.
- 잠들기가 어렵거나 자다가 자주 깬다. 또는 잠을 너무 많이 잔다.
- 폭식을 하거나 식사를 잘 하지 않는다.
- 늘 피곤하다.
- 두통이나 복통 등 여기저기 아프다.
-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다.
- 무기력하다.
- 상황이 더 나아질 것 같지 않고 절망스럽다.
-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우울증일 때는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도 저하되기 때문에 공부를 해도 성적은 오히려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보기에 의지가 약해서, 게을러서 또는 게임을 너무 많이 해서 성적이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되기 쉽습니다. 게임이나 인터넷, 스마트폰 등에 빠지는 일은 중독이 되어서 빠지기보다는 우울증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이라면 기다려 볼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성적이 떨어지고 앞서 언급한 증상들과 함께 나타난다면 우울증을 의심해야 봐야 합니다.

두통이나 복통, 어지러움 등의 신체적인 증상은 검사를 해도 이상이 없고 또 증상이 없을 때는 너무 멀쩡하게 지내기 때문에 꾀병은 아닌지 의심이 들 수도 있지만 이러한 신체적인 증상은 실제 통증이며 우울증의 증상입니다.

우울증은 의지가 약해서 또는 게을러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뇌의 기질적인 병으로써 치료를 하면 호전됩니다. 우울증으로 인해 아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못하게 되지 않도록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 남 영 교수

전문진료분야
소아청소년 정신건강클리닉
여성 정신건강클리닉
(경년기우울증, 산후우울증,
월경전증후군),
우울증, 조울병, 조현병,
심인성통증.

진료시간
오전 » 화, 목
오후 » 수, 금

문의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031 · 961 · 7220

배효상 교수와 함께하는 건강한 생활

체질 음식으로 관리하는 아이들의 건강 관리

진료실에 앉아서 환자들을 대하다 보면 각기 다른 질병이나 연령과 성별이 다르더라도 가장 많은 질문을 하시는 것이 “무엇을 먹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을까요?”라는 것입니다.

먹는 것이 부족했던 시절과 달리 현재는 골라서 먹는 것이 중요하고 자신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음식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다 보니 이 같은 질문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지요.

음식의 중요성에 대해 한의학에서는 식약동원(食藥同源)이라는 개념으로 이야기 합니다. “음식과 약은 그 근원, 뿌리가 같다”라는 뜻이지요. 예부터 인류는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천연물질을 섭취하여 왔는데, 그 중에서 오랫동안 먹어도 맛있고 인체에 부작용이 가장 적은 것들은 음식으로 자리 잡았고, 오랫동안 먹기에는 힘들고 많이 먹으면 부작용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적절하게 활용하면 질병치료에 활용될 수 있는 것들은 약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음식과 약은 출발이 같습니다. 다만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와 질병치료에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효과에 따라 구분된 것입니다.

이 개념은 한의학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항상 활용하셨던 것입니다. 봄철에 나는 냉이, 달래와 같은 봄나물을 캐서 신체대사가 활발해서 풍부한 영양이 필요한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하고, 날씨가 추워지는 가을에는 겨울을 대비해서 몸을 따뜻하게 하는 생강, 대추를 넣은 차를 마시는 것도 음식과 약을 같이 쓰셨던 어르신들의 지혜라 생각합니다.

가려먹는 것이 좋은가요?

우리 아이들의 식단은 부모님들이 정하시지요. 아이들은 체질적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먹는 음식은 어머님들이 만들어주시는 음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은 한쪽으로 치우치는 식단은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다만 먹는 음식은 단 기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평생 동안 함께하는 것이므로 어떤 종류를 가장 많이 섭취하고 있는 가를 알아야 합니다.

곡류, 채소류, 육류, 어패류, 해조류, 과일, 견과류 등을 고르게 식단으로 구성하고 있으시다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또한 녹색, 노란색, 흰색, 붉은색, 검은색이 절절히 조화되고 아침에는 채소와 과일을, 점심은 간단하게, 저녁은 기름지지 않은 고기와 알맞게 조리한 어패류를 먹는다면 임금님의 밥상이 부럽지 않지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아토피나, 천식, 소화불량, 소아비만 등의 증상이 있다면 음식의 종류에 신경을 쓰시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특히 피부나 호흡기 질환과 소화기 질환이 있다면, 평소에 먹는 음식을 조절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의 체질에 맞는 음식은 약해지기 쉬운 몸을 튼튼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아이는 음식 소화를 잘 못시켜요.

태어날 때부터 비위기능이 약한 체질인 소음인은 음식을 섭취하는데 불편함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런 아이들은 생각이 많고 원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사고의 깊이를 길러주면 학습에 능력을 발휘하기도 하지만 암기만 하라고 하면 힘들어하지요. 찬 음식 보다는 소화되기 쉬운 따뜻한 음식을 먹는 것이 필요하고, 기름진 음식은 피해야 합니다. 밥을 할 때 찹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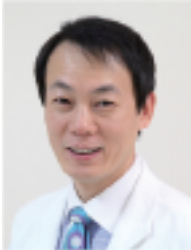
을 섞으면 도움이 되고, 밥을 먹기 힘들어 한다면 아침에 인절미와 감자를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육류로는 삼계탕과 같이 닭을 이용한 음식이 좋고, 북어국도 속을 편안하게 하는데 좋습니다.

기침을 자주 하고 호흡기 질환이 많아요.

체질적으로 보면 호흡기 질환이 잘 나타날 수 있는 체질이 태음인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환기가 잘되는 공간에서 복습을 위주로 폭 넓게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뚱뚱해지기 쉽기 때문에 지방질이 많은 식품보다는 단백질이 많은 식품이 더 좋습니다. 밥을 할 때 콩, 수수, 현미와 같은 잡곡을 많이 섞는 것이 좋고, 오랫동안 씹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김, 미역과 같은 해조류와 도라지, 더덕, 연근, 마와 같은 채소류를 평소에 챙긴다면 장을 튼튼하게 하고 순환을 잘 시켜 줄 수 있습니다.

열이 많고 변비가 자주 생겨요.

열이 많고, 음식을 먹는 것에는 문제가 없지만 변비가 생기면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체질이 소양인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집중을 잘하고 빠르게 습득하는 학습 능력이 있지만 오래 지속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어서 즐겁게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이 많고 자극성이 있는 음식을 오랫동안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싱싱하고 성질이 뜨겁지 않은 음식과 소채류, 해물류가 이롭습니다. 배추, 오이, 상추 등과 같이 바로 씻어서 먹을 수 있는 신선한 야채를 먹는 것이 좋고, 여름에 많이 나는 수박, 참외가 같은 과일을 통해 열을 내리고, 변비를 예방해야 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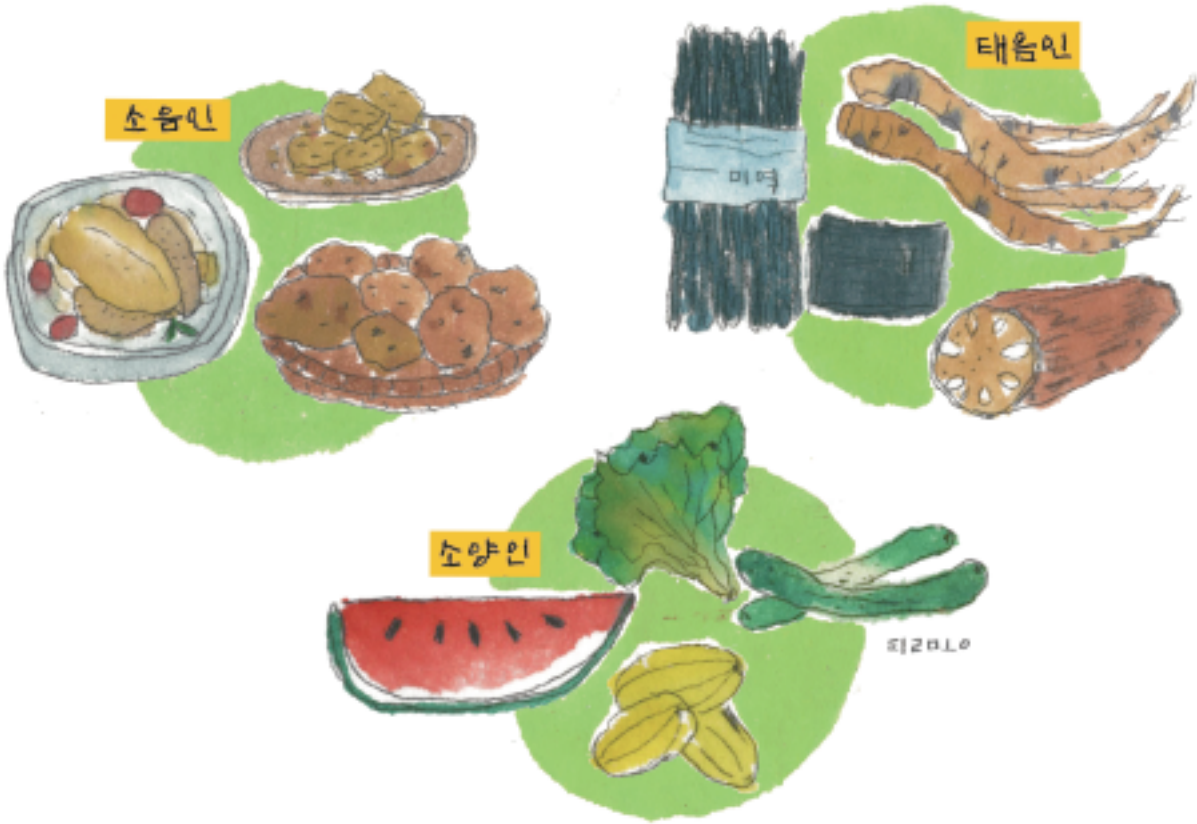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체질학과

배 효 상 교수

전문진료분야
체질면역질환
(알러지, 천식, 자가면역질환),
체질개선, 중풍마비후유증,
암후유증

진료시간
오전 » 월, 수, 금
오후 » 월, 화, 목, 금

문의
체질학과 외래
031·961·9041



남기연 교수의 건강 정보

우리 아이의 바른자세

각종 영유아, 청소년 초기 검진으로 큰 병을 예방하자고 하는 부모들이 왜 성장통과 나쁜자세로 고생하고 있는 아이의 근골격계 질환은 방치한 채 병을 키워가고만 있는 것일까요? 우리 아이의 몸속 장기들만 중요하고 큰 골격이 되는 뼈와 근육들은 덜 중요한 것일까요? 간단한 척추 X-ray사진 한 장과 보행검사 만으로도 내 몸의 척추와 자세를 알 수 있는데 검사해본 아이는 얼마나 될까요?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재활의학과
남 기 연 교수

전문진료분야
자세교정,
통증클리닉(팔통증,
손/발저림, 발통증, 평발),
스포츠클리닉, 림프부종

진료시간
오전 >> 월, 수
오후 >> 목, 금

문의
재활의학과 외래
031·961·7460

있어 부모의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척추 측만증은 정확한 의학적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치료방법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나 측만의 각도가 20도 이상이며 성장이 지속중이라면 척추보조기가, 40도 이상으로 심하게 틀어진 경우 드물지만 수술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까지 있어 조기발견과 꾸준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20도 이상 큰 측만증이 있어도 증상이 없고, 변형이 흉추에 국한되어 있다면 아이와 부모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장기 아이들의 척추 측만증을 조기 발견하려면 수시로 아이의 몸을 살펴봐야 합니다. 집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거울앞에 섰을 때 어깨의 높이가 다른지 보는것이고, 또한 아이의 허리를 앞으로 굽혀서 부모가 뒤에서 봤을 때 등의 높이가 양쪽이 수평하지 않고,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면 측만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안짱걸음

안짱걸음은 걷는 모습이 뒤뚱 거린다 하여 오리걸음이라고 불리며, 보행시 발의 앞부분이 비정상적이게 안쪽으로 모여 걷는 걸음입니다.

좌식문화인 우리나라의 대부분 어른들은 ‘어릴 때는 다 그렇다.’ ‘나중에 다 좋아진다.’ 라고 하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안짱걸음이 남아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안짱걸음의 원인은 크게 고관절이 과도하게 회전된 경우, 경골이 안으로 휘어져 있는 경우, 발 자체가 안쪽으로 휜 경우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중 생활습관을 통해 안짱걸음을 예방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는 습관이나 W자로 앉는 습관은 안짱걸음을 조장함으로 반듯이 교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생활 습관 교정으로도 남아있는 안짱걸음은 소아 하지 근골격검진을 통해 정확한 원인을 밝혀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위에 살펴본 몇가지 대표적 예 외에, 우리 아이들에게서 보일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은 흰 다리, 거북목 증후군(일자목), 평발, 안짱다리, 척추측만 등 입니다. 근골격계 질환들은 초기에 치료가 이루어지면 심한 증상으로까지 발전되지 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간단한 교정으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모들은 “키를때는 다 그래.” 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비전문적인 부모 진단으로 상태를 파악하여 변형을 방치해 큰 병으로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자세는 집중력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두통이나 목 뒤의 긴장을 없애, 장시간 집중해 공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건강에도 좋을 뿐 아니라 몸짱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몸 전체의 균형이 잡혀 아름다운 몸매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쁜 자세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중심근육, 안정화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이 필요하며, 근골격계 검사를 통해 개별 맞춤 처방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의 평소 자세가 좋지 않아 근골격계 통증을 호소하거나 목 및 어깨, 골반이 삐뚤어져 보인다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근골격계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

자녀 흰 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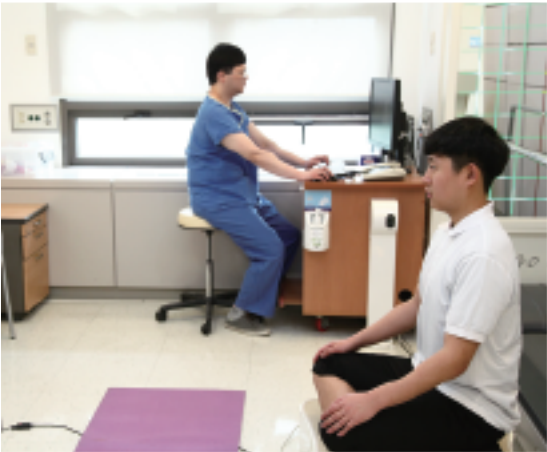
아이 다리가 O자형으로 휘어있다면 어느 부모나 걱정할 것입니다. 여자 아이일 경우에는 특히 더 할 것이고, 가늘고 길게 쭉 뻗은 다리는 모든 여성의 로망이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흰 다리는 단순히 ‘미용상 보기 싫은’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걸음걸이가 이상해 지면 골반, 무릎, 발목 등에 2차적인 통증이 유발될 수 있고, 전체적 정렬이 삐뚤어지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에서 오는 흰다리 원인도 있습니다. 양반다리를 하고 오래 앉아 있거나 다리를 꼬는 습관, 특히 우리나라는 좌식문화가 보편적이기 때문에 흰 다리를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이의 흰다리가 모든 경우에서 다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걸음마를 시작할 나이에 O자형 다리를 보이나, 만 2~3세경 무릎을 붙였는데 양발이 서로 떨어져있는 X자 다리가 보이는데 이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이후 대부분의

경우 5~6세를 지나면서 다리모양이 곧고 바른 모습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때문에 만 2세가 지나도 O자형 다리가 좋아지지 않고 악화되거나, 무릎 사이 간격이 어른 주먹 크기 이상인 경우는 흰 다리를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흰다리를 갖은 아이들 중에서 다리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단순 성장통으로 치부하지 말고, 정확한 원인과 변형정도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척추 측만증

척추 측만증은 골반이나 어깨 높이가 서로 다르거나 몸통이 한쪽으로 치우쳐 생기는 척추질환입니다. 틀어진 정도가 경미하고 진행중이 아니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장기 아이들이 갑자기 키가 클 때 척추측만증이 급격히 진행되는 경우가



김은진 교수의 건강 정보

건강하고
튼튼하게
성장하는 법

성장은 몸을 이루고 있는 신체의
각 기관 및 근육, 골격이 발달함에 따라
체중이 증가하고 키가 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사회경제적 수준이 향상되고
각종 매체의 영향으로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성장기 아이들의
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한방소아청소년과
김은진 교수

전문진료분야
성장부진, 소아비염, 소아성장,
아토피피부염,
골반통, 만성질환, 불임,
산후관리, 산후풍, 생리불순

진료시간
오전 >> 월, 화, 수, 금, 토
오후 >> 월, 화, 수, 금, 토

문의
한방소아청소년과 외래
031·710·3724

우리 아이의 최종 키는 어떻게 예측 하나요?

아이의 성장 중에서 특히 유전적인 부분이 70~80% 차지하
게 되는데 부모님의 키를 통해 아이의 예상 키를 구하는 공식을
MPH(Mid-Parental Height)라고 합니다.

남자 아이 = (아버지의 키+어머니의 키+13cm)/2

여자 아이 = (아버지의 키+어머니의 키-13cm)/2

유전은 선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없지만
후천적인 영향에 의해서 오차범위 최대 10±acm 까지 최종 키의
성장이 가능합니다.

어떤 경우에 성장 치료가 필요한가요?

▶ 저신장인 경우 (같은 성별 및 같은 나이 또래들 100명중 3번째
이내로 작거나 표준 평균치보다 10cm 내외로 작은 경우 혹은
연간 성장 속도가 5cm 미만인 경우)

- ▶ 부모의 키가 작은 경우
- ▶ 또래에 비하여 작은 경우
- ▶ 비염, 아토피 등 만성질환이 있거나 정상적 성장속도가 떨어
지는 경우
- ▶ 식욕부진이나 소화장애가 있고 항상 피곤해 하는 등 성장속도
장애가 예상되는 경우

성장 치료는 언제 받는게 좋을까요?

성장판은 뼈의 길이 성장이 이루어지는 부위로 장골의 길이
방향의 신장은 성장판이 열려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성장판은
장골의 양 끝에 위치한 연골세포집단으로 골간단(metaphysis)과
골단(epiphysis)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성장판 내 연골이 골로
변화 하게 되는 과정(endochondral ossification)을 거치면서 장
골의 길이가 길어지는 최종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성장기에 6~12개월간의 키와 체중의 변화를 측정하여 성장
속도를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며 성장판이 닫히기 전에 성장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자 아이의 경우 만 12세~14세, 여자
아이의 경우 만 10~12세가 최종 신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 규칙적인 식사하기

규칙적으로 하루 3끼를 먹는 아이는 영양 불균형이 적고,
지속적인 영양분 흡수로 인해 키 성장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탄산음료, 카페인음료, 주스 등의 잦은 섭취는 칼슘을
배출하고 수분을 부족하게 해서 정상적인 성장을 방해 할 수
있으니 삼가도록 합니다.

▶ 충분한 숙면하기

하루동안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의 60~80%가 수면 중에
나오는데 특히 밤 10시~새벽 2시 사이에 가장 많이 분비됩니다.
성장기에는 7~8시간의 충분한 숙면이 키 성장에 도움 됩니다.

▶ 충분한 운동 및 야외활동

햇볕 아래서 뛰어노는 것보다 좋은 운동은 없습니다. 햇빛은
비타민 D를 합성해서 뼈를 성장하게 하며 경쾌하게 뛰는 운동은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키고 스트레스를 없애주어 신진
대사를 원활하게 합니다.

▶ 잦은 질병은 성장의 방해꾼

- 배가 자주 아프고 밥을 잘 먹지 않아요.
- 감기에 자주 걸리고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천식 등의 증상이
있어요.
- 잘 놀래고 예민하며 깊은 잠을 잘 못자요.
- 다리가 잘 아프고 쥐가 잘 나며 자주 넘어져요.
- 소변을 조금씩 자주 보거나 아뇨증이 있어요.

잦은 질병 및 소아의 허약 증상은 성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기
마련입니다. 상기 허약아 증상에 해당하는 경우 꾸준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한방 성장 클리닉은 어떻게 치료 하나요?

아이들 신체의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해 성장부진의 원인을 파
악하여 개선하고 뼈와 근육의 성장을 돕습니다. 남아의 경우

사춘기에 연간 7~12cm, 여아의 경우 연간 6~11cm 자랍니다.
성장판이 닫히기 전 적극적인 성장을 위해서 체질적으로 허약한
부분의 개선을 도와 인체의 모든 에너지를 성장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성장 클리닉의 포인트입니다.

성장의 기본은 소화기를 튼튼히 하고 근골을 강화하는 것입
니다. 한약복용을 통해 오장육부의 기혈편차를 조절하고 체질에
맞는 성장을 유도합니다. 또한 뼈와 근육에 관계된 혈자리에 침
치료를 통해 성장판을 자극하여 뼈의 길이 성장을 돕습니다. ●



성장 방해 요인 제거 및
성장 잠재력의 극대화

알레르기 질환 개선

소화기계 문제 개선

소아 비만 및 성조숙증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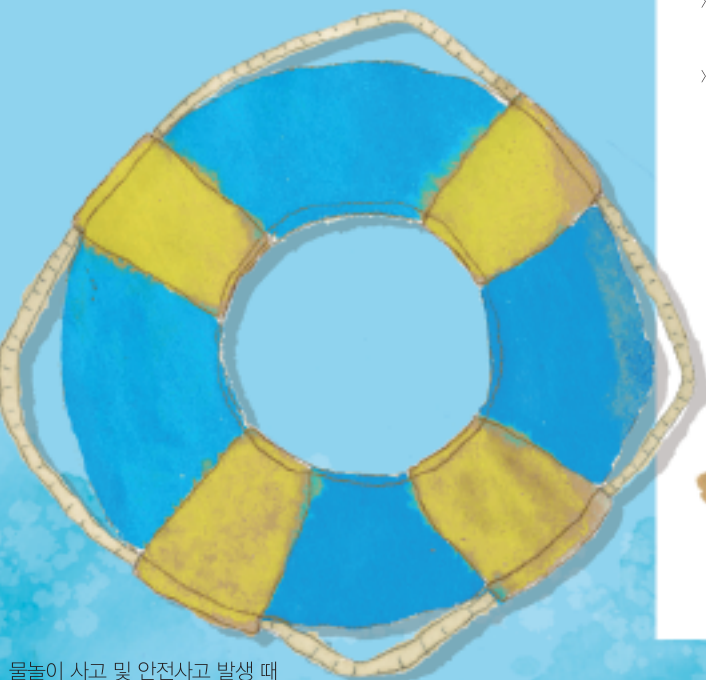
개인별 맞춤 성장 탕약

성장점 자극 침치료

성장 운동 요법

여름 휴가철 물놀이 이것만은 알고 떠나자!

휴가를 앞두고 물놀이를
계획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즐거운 물놀이지만 자칫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꼭 지켜야 할 여름철 물놀이 안전수칙,
여러분의 물놀이 안전지수를 높이세요!



물놀이 사고 및 안전사고 발생 때
즉시 119(해상 112) 또는 1588-3650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놀이 전에 알아야 할 안전습관!



- 사고 발생 위험이 큰 음주 후 수영은 절대 금지합니다.
- 수영 전, 반드시 준비운동 및 구명조끼 착용해야 합니다.
- 수영 능력을 과신한 무리한 행동은 자제합니다.
- 수영 중 몸에 소름이 돋고 피부가 당겨질 때는
즉시 수영을 중단하고 몸을 따뜻하게 감싸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이 경우는 다리에 쥐가 나거나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
상당히 위험한 경우가 많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물에 들어갈 때 준비 사항

- » 수영 중 “살려 달라”고 장난, 허위적거리는 흉내는
금지합니다.
- » 통나무 같은 의지물이나 부유구, 튜브 등을 믿고
자신의 능력 이상 깊은 곳으로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 » 물의 깊이는 일정하지 않아 갑자기 깊어지는 곳은
특히 위험해 무리한 행동은 삼가 해야 합니다.
- »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 물을 적신 후 천천히 들어가야
합니다.(다리→팔→얼굴→가슴 순)
- »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주위에 알리고 119에
신고합니다.
- » 구조에 자신이 없으면 함부로 물속에 뛰어들지
말아야 합니다.



바다에서 알아야 할 안전습관!

- 거센 파도에 밀려났을 때는 파도에 대항하지 말고
비스듬히 헤엄쳐 육지를 향해 가야 합니다.
- 머리는 언제나 수면 상에 내밀고 있어야 합니다.
- 체력 소모가 적게 편안한 기분으로 수영합니다.
- 간조와 만조는 대개 6시간마다 바뀌므로 간만 때의
조류변화 시간을 알아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수초에 감겼을 때는

- » 부드럽게 서서히 팔과 다리를 움직여 풀어야 하며,
물 흐름이 있는 경우 흐름에 맡기고 기다려야 합니다.
- » 침착하게 여유를 가지고 호흡하고 서서히 부드럽게
몸을 수직으로 움직여 꾸준히 헤쳐나와야 합니다.

갯벌에서 놀이를 할 때는

- » 갯벌에 발이 깊이 빠진 경우 빠진 반대방향으로 엮드려
기어나오며, 안내인 또는 119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 » 갯벌에는 누구든지 절대로 혼자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계곡에서 알아야 할 안전습관!



- 시선은 건너편 강변 독을 바라보고 건너야 합니다.
- 물의 흐름에 따라 이동하며 물살이 셀 때는 물결을
약간 거슬러 이동합니다.
- 물결이 완만한 장소를 선정하여 될 수 있으면
바닥을 끝듯이 이동합니다.
- 건너편 하류 쪽으로 밧줄(로프)을 설치하고
한 사람씩 건너야 합니다.

계곡에서 아영지를 선택할 때는

- » 물이 흘러간 가장 높은 흔적보다 위쪽에 있도록 하고,
고지대와 대피로가 확보된 곳을 선정하며
또한 낙석 위험과 산사태 위험이 없는 곳을 선택합니다.

하천이나 계곡 물을 건널 때는

- » 다른 물체를 이용하여 수심을 재면서 이동합니다.
- » 밧줄(로프)은 물 위로 설치하고, 밧줄이 없을 때는
여러 사람이 손을 맞잡거나 어깨를 지탱하고
물 흐르는 방향과 나란히 서서 건너갑니다.



아빠하고 나하고 즐거운 캠핑

동국대학교일산병원 CS경영팀 **김철주** 파트장 & 딸 **김누리**
행복 스토리

처음 캠핑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누리에게 친구를 만들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저희 세대 때만 해도 친구들과 동네에서 해질녘까지 뛰어놀던 추억이 있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런 추억이 없어 안쓰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포털 검색 중 우연히 카페에 외동아이들을 가진 가족들의 캠핑 모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외동 아이들만 가니 자연스레 친구가 되어 어울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처음엔 귀찮고 사야 될 것도 많아 고민이 많았습니다. 사실 캠핑을 가면 아빠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잖아요. 하지만 딸을 위해 시작했고 지금은 가족 모두 캠핑을 좋아합니다.

캠핑 정모라는 걸 처음 갔을 때는 정말 신기했습니다. 서른 가족 정도가 모였으니 인원수로만 보면 90명이었고, 캠핑장 전체를 빌려서 편히 잘 놀 수 있었습니다. 가족여행을 갈 때마다 누리는 외동아이라서 항상 부모가 같이 놀아줘야만 하고 아이 곁에만 있어야 했지만 캠핑 정모는 달랐습니다. 아빠 엄마를 찾지 않고 아이들끼리 잘 어울려 노는 모습을 보니 흐뭇했습니다.

아이들과 같이 운동회, 게임, 보물찾기 등을 하다보면 2박 3일은 순식간에 지나 가게 됩니다. 아빠 엄마들이 미리 준비한 선물을 주면 아이들은 그 선물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냐며 함박웃음을 짓습니다.



캠핑을 한지 1년 밖에 안 되어 많은 곳을 가지는 못했습니다. 여름에는 누리가 물놀이를 좋아해서 주로 물이 있는 계곡이나 바닷가로 많이 갔고, 가을에는 밤, 과일 따기 체험이나 동물원이 있는 캠핑장, 겨울에는 따뜻하게 놀 수 있는 실내놀이터가 있는 캠핑장에 주로 갔습니다. 한겨울에는 낭만을 즐기기 위해 장박(캠핑장에 텐트와 장비를 두고 캠핑하는 것)을 도전하려고 큰 히터까지 구매했지만 누리에게는 아직 무리인 것 같아 다음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요즘 캠핑장은 생각하시는 것보다 깨끗하고 편의시설 또한 잘 되어 있습니다. 보통 가족단위의 캠핑이 많다보니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시설, 수영장 등이 대부분 구비되어 있습니다.

캠핑장비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빠들은 대부분 장비에 집착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장비 욕심이 많습니다. 만약 처음 캠핑에 도전한다면 최소한의 장비만으로 캠핑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따뜻한 날씨에는 많은 장비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캠핑을 다니다보면 다른 집들의 장비를 보게 되고 필요한 장비만을 하나둘씩 사야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중복 구매도 피할 수 있고요. 처음에 너무 막막하면 돛자리 하나 사서 나무 그늘이 많은 곳으로 먼저 놀러가세요. 그러면 뭐가 필요할지 느끼게 될 것입니다.

캠핑을 하면 안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많이 먹게 됩니다. 정말 집에서는 맛없던 라면도 야외에서 먹으면 더 맛있게 느껴집니다. 포털사이트에 캠핑 요리로 검색을 해보면 해먹을 것도 많고 맛있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간편식도 마트에서 많이 팔기 때문에 음식 준비에 대한 스트레스는 버리셔도 됩니다. 시내와 가까운 캠핑장의 경우는 음식 배달도 가능합니다.

캠핑을 나가보니 아빠들이 왜 이렇게 요리를 많이 하는지 처음엔 당황스러웠습니다. 싫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둘씩 배워가면서 해보니 나름 또 재미있어지더군요. 어려운 요리보다도 쉽고 편한 요리, 하지만 나름 맛있는 이런 요리 위주로 하나씩 배워가는 중입니다.

처음이 힘들지 하다보면 누구나 할 수 있고 가족과 좋은 추억을 만들기도 쉬운 게 캠핑인 것 같습니다. 집에서만 쉬는 주말이 아니라 가족끼리 나가서 스트레스를 풀고 아름다운 추억을 쌓아가는 건 어떨까요. 지금이라도 돛자리 하나 들고 나가보세요. 생각보다 좋은 곳들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캠핑을 즐기고 있습니다. 가족과 소중한 추억, 지금부터 만들어 보세요. ●



그림 속에 담긴
화가의 삶과 꿈

박수근

Art

“나는 인간의 선함과 진실함을 그려야 한다는
예술에 대한 대단히 평범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내가 그리는 인간상은 단순하고 다채롭지 않다.
나는 그들의 가정에 있는 평범한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물론 어린아이의 이미지를 가장 즐겨 그린다.”



박수근, 공기 놀이하는 소녀들,
하드보드지에 유채, 22x30cm, 1960



박수근, 아기 업은 소녀,
하드보드지에 유채, 35x21cm, 1963



박수근, 독서하는 소녀,
하드보드지에 유채, 20.1x13cm, 1950



박수근, 아기 보는 소녀,
캔버스에 유채, 27.5x13cm, 1953



단발머리에 검은 고무신을 신은 소녀가 어린 동생을 등에 업은 모습이
참으로 정감 어리다. 지금은 거의 찾아 볼 수 없지만 6.25전쟁을 겪으며 가난
했던 50~60년대 그 시절에는 흔하다 못해 친근한 모습이었으리라. 어린
자식을 돌볼 겨를 없이 일터로 나가야 했던 어머니를 대신하여 큰 아이는
작은 아이의 엄마이자 친구였다.

우리 민족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냈던 화가,
박수근의 그림 속 이 소녀는 그의 딸 박인숙이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그는 특정한 누구를 그리기 보다 이름 없이 살아가는 서민들의 일상의 모습을
그리기를 갈망했다. 박수근은 이 소재를 즐겨 그린 듯 아기 업은 소녀 그림이
몇 점 남아 있는데, 점차 아기 돌보는 소녀가 그 시대를 대표하는 전형적인
아이의 모습으로 형상화된 것을 느낄 수 있다.

검고 가는 선을 절제하여 단순하게 그린 소녀의 모습은 마치 아이가 그린
그림 같이 어눌하면서 소박하다. 그 몇 줄 안 되는 선으로만 표현된 소녀의 해
맑은 표정은 보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대상을 바라 봤던 화가의
따뜻한 시선까지 전해준다. 바로 인간의 선함과 진실함을 그리고자 했던
화가 박수근의 가치관이 절실히 드러나는 순간이다.

별 다른 놀이가 없던 시절 땅 바닥 돌을 주워 공기 놀이를 하는 소녀 무리
와 고무줄을 하는 아이들, 혼자 조용히 책을 읽는 아이까지 우리 민족 일상의
삶의 모습을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냈던 그는 여인과 노인뿐 아니라 아이들
에게 까지도 깊은 관심을 기울였던 화가였다.

강원도 양구 읍내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박수근은 농사와 장사를
하던 아버지 덕분에 넉넉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이러한 풍족함도 오래 가지
못했다. 일곱 살이 되던 해, 아버지는 광산업에 실패하고 집안의 눈과 발은
홍수로 물에 잠겼다. 엮힌 데 덮친 격으로 어머니까지 병을 얻게 되어 수근은
동생들을 돌봐야 했다. 그의 이런 시절 기억 때문에 아기 업은 소녀들에게
유난히 애정 어린 눈길이 갔을 지도 모른다.

양구의 공립보통학교에 들어간 그는 그림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다. 미술
시간을 너무도 좋아했던 아이였다고 스스로 고백한다. 어느 날 도판으로

만난 프랑스의 화가 장 프랑수아 밀레의 '만중'은 어린 수근의 마음을 사로 잡았다. 이
그림을 보며 그는 밀레와 같은 화가가 되겠다는 꿈을 키웠다. 하지만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상급학교 진학을 꿈 꿀 수 없었기에 홀로 그림을 공부하며 산으로 들로
돌아 풍경을 스케치하고 농가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그렸다.

여덟 살이 되던 해, 조선미술전람회의 입선하면서 화가로서 세상의 첫 인정을
받게 된다. 그리고 미래의 이 훌륭한 화가는 훌륭한 아내를 맞이한다. 오랜만에 안락
한 삶이 찾아 왔지만 전쟁으로 인해 또 다시 그의 삶은 험난하게 변하고 말았다.

미국 PX에서 초상화를 그리며 생계를 유지하던 그의 그림을 먼저 알아 본 것은
외국인들이었다. 당시 그의 그림은 40~50달러에 불과했다. 특히 미국인 마가렛 밀러
여사는 박수근의 작품을 좋아했고 귀국 후에도 계속 그를 후원했다고 한다. 그
덕분에 국내 미술계에서 박수근의 작품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짧지만 화가로서
잠시 전성기를 누린다. 하지만 신장염과 간염을 앓게 된 그는 급기야 한 쪽 눈이
실명하기에 이른다. 건강은 점점 더 악화되어 병원에서조차 회복이 어려워지게 되고
51세의 나이로 화가로서의 그 생을 마쳤다.

비록 가난하고 암울한 시대였지만 함께 살았던 사람들의 선하고 진실한 마음씨를
애정 어린 눈길로 화폭에 담아 낸 박수근의 그림에서 시대의 가난과 고통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도리어 풍요로운 작금의 시대에 결핍되고 있는 인간의 순수를 담고
있다. 가난한 시절 보잘 것 없는 아이들을 그린 그의 그림이 이렇듯 아름다운 것은
무엇보다 인간을 따뜻하게 바라 본 그의 마음이 그림에서 묻어나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진실하게 살려고 애썼다. 또 나는 나의 고난의 길에서 인내력을 길렀다.”



글 이지윤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조형예술학 석사,
2004~2016년 현재 고양문화재단 아람미술관 큐레이터,
저서로 <교과서 속 현대미술 이야기> 등이 있다.

알찬 열매가 맺히는 땅, 임실

사람의 마음을 한껏 달뜨게 만들던 봄이 지나 여름으로 향하는 계절.
그 시기에 아이와 함께 향하고 싶은 장소가 있다.
섬진강 흐르는 물길을 지긋이 바라보면 저절로 시 한 편이 써내려갈 것만 같은 곳.
어쩐지 고소한 치즈의 향이 이 땅의 여기저기 흐를 것만 같은 그곳.
알차게 열매를 맺는다는 뜻의 지명을 가진 풍요로운 땅, 전라북도 임실이다.



안전을 놀이로 배우는 장소

임실에는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안전체험관이 있다. 바로 전북 119안전체험관이다. 매년 전국에서 이곳을 찾는 이들이 십만 명이 훌쩍 넘는다. 이곳에서는 성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비롯한 미취학 아동을 위한 체험코스까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 자신과 소중한 가족의 안전은 이러한 체험관을 통해서 배워가는 것이 중요한 시기다.

이곳의 프로그램을 크게 나누자면 4가지로 분류된다. 가장

기본이 되는 재난종합 체험동에서는 4D재난영상체험 등의 최첨단 기기가 지진 및 태풍 체험을 비롯한 다양한 재난 상황을 재현한다. 그 느낌이 제법 실감이 나서 놀랄 수준이다. 또한, 바로 옆에 있는 위기탈출 체험동에서는 외출도하를 비롯해서 건물탈출 등의 다양한 위급 상황에서의 탈출 방법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곳 전북 119안전체험관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물놀이 안전체험관이다. 이곳에서는 익수 사고체험 및 급류 사고 등의 물놀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대처법을 전문 교관이 쉽고 재미

있게 알려준다. 더구나 아이들이 물놀이할 수 있는 시설까지 준비되어 있다. 그렇기에 날이 더워지는 여름에는 상당히 많은 아이를 데리고 가족들이 찾는 곳이다.

[여행정보]

주소 » 전북 임실군 임실읍 호국로 1630
전북 119안전체험관

전화번호 » 063-290-5676

예약 사이트 » <http://safe119.sobang.kr>

프로그램 요금 » 2,000~4,000원

(단, 물놀이 안전체험장은 8,000원)

휴관일 » 매주 월요일

(물놀이 체험장의 경우 6월 1일~8월 31일까지만 운영)

Tip » 최소 1~2개월 전 프로그램 예약 필수



내 손으로 직접 만드는 치즈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음식은 그리 흔하지 않다. 그 가운데 치즈는 유별나다. 어느 음식과도 조합이 어울릴 것만 같은 느낌이 강하다. 뜨겁게 달아오른 치즈가 한껏 기지개를 켜며 늘어나는 것은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돌기 마련이다. 특히 아이들 입맛에는 더할 나위 없다. 해외에서야 긴 역사를 가진 것이 치즈지만, 국내에서 맛볼 수 있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국산 치즈는 1967년 임실의 한 작은 성당에서부터 출발하였다. 벨기에에서 온 지정환(디디에 세스테벤스) 신부와 지역 주민들이 산양유를 가지고 만들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그 작업이 쉬운 일은 아녜다. 긴 시간에 거쳐서 실패와 도전을 거듭했다. 끝내 지정환 신부가 저 멀리 유럽으로 치즈 유학을 다녀온 이후에야 정상적인 치즈가 생산 가능했다. 그런 도전 정신과 굳건한 의지 덕분에 1981년이 되어서야 조합이 만들어지고 우유로 만든 치즈가 탄생했다.

점점 산업화하여 젊은이들이 속속 도시로 떠나가던 당시, 치즈는 외국에서 온 눈이 파란 신부님이 임실군민에게 선물한 기회였다. 덕분에 이제는 치즈를 떠올리면 바로 임실이 라는 고장이 생각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었다. 외래 음식이



국내 한 지역의 특산물이 된 것이다. 그래서인지 이제는 임실의 명예 군민이기도 한 지정환 신부에 대한 임실군의 사랑은 지대하다. 최근에는 임실을 성가리 일대에는 그와 치즈 이야기를 가지고 벽화 거리가 조성되기도 했다.

이런 임실에는 치즈를 만드는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마을과 2011년에 개장한 국내 유일의 치즈테마파크가 있다. 테마파크는 생각보다 넓고 단아하다. 마치 유럽의 작은 마을 하나가 그대로 옮겨온 분위기다. 특히 팩맨을 닮은 노란 치즈 건물이 돋보인다. 이곳에서는 아이들과 함께 우유로 치즈를 만드는 과정과 피자를 직접 만드는 과정을 체험해볼 수 있다. 고사리손으로 토핑을 하나둘 올려 만드는 pizza는 시식하거나 포장해서 가져갈 수 있다.

[여행정보]

주소 » 전라북도 임실군 성수면 도인2길 50
임실치즈테마파크

전화번호 » 063-643-2300

예약 사이트 » <http://www.cheesepark.kr>

프로그램 요금 » 16,000~27,000원 (A~C 코스 기준)

휴관일 »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월요일



글+사진 박태식

사단법인 한국여행작가협회 소속

2014 시티은행 사보 여행기사 기고

동국대학교의료원보 동행 여행기사 연재

1인 매체 Korea-trip.com 운영

우리가 받는 가장 큰 격려는 바로 여러분들 얼굴에 피어나는 웃음입니다.

고객의 소리

“엄지 척!!”

벌써 3년째 입원입니다.

병원에 올 때마다 이미 마음속에 의료진의 전문성은 기대에 어긋남이 없었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간호사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예쁘고 감쪽한 간호사의 “안녕히 주무셨어요?”라는 인사말에 어머니께서 아침에 눈을 뜨시며 미소로 답했습니다. 웃기도 잘하고 정말 상냥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또 한 분 유지영 간호사에게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침착하고 여유 있는 모습이 프로답게 느껴져 많은 신뢰가 갔습니다. 친절하고 정확히 어렵고 힘든 곳을 물어봐 주고 따뜻한 말로 응대해주는 모습에 고맙다는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몸이 아파 서럽고 잠도 못 잔 환자들에게 관심과 사랑의 인사를 잊지 않고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해 주는 모습에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의 최전선을 지키는 간호사님들께 엄지 척! 올립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동국대학교경주병원에서 열정을 배워갑니다.”

저는 반실신상태로 응급실에 왔습니다. 증상은 몸무게가 10키로가 빠지고 무한 갈증으로 물을 많이 마셨습니다. 젊고 건강에 자신있었기에 웹서핑으로 구강건조증이라고 자가진단 하였습니다. 그리고 과일, 음료 등 많이 마시고 비타민 주사까지 맞았습니다. 당뇨병을 구강건조증으로 오인하고 당을 계속 섭취했으니 독약을 마신 꼴이 됐습니다. 내원 당시 혈당수치는 HIGH였다고 들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받은 후에야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후 중환자실로 가니 젊은 나이에 무섭기도 하고 스트레스 관리를 못한 저의 한심함과 후회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업무교대 시간에 환자의 증상 및 경과를 토론했고 친절히 환자를 케어하는 간호사들로 인해 안정을 찾았습니다. 정말 힘들게 일하는 간호사들을 보고 인간적인 감정, 아픈이를 안타까워하는 감정을 느낄 수 있어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를 치료해주신 문성수 교수님, 그리고 71병동 간호사님들, 동국대학교경주병원에서 일하시는 교직원 모두 감사합니다.

동국대학교경주병원

“저에게 삶의 생기를 넣어주신 선생님”

저는 자살기도를 9번이나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열흘 동안 의식불명으로 아주대병원에 있다가 제생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하체마비 증상으로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에 외래로 통원치료 중입니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죽고 싶은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러나 분당한방병원 침구과 치료를 받으면서는 삶의 생기가 조금씩 생겼습니다.

김은정 교수님은 저를 인간적으로 따뜻하게 대해주시며 마음까지 긍정적으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또한 차지운 간호사 선생님도 항상 밝은 모습으로 환대해주며, 마치 누이같이, 때로는 동생처럼 기분 좋게 맞아주었습니다.

이런 두 분의 세심한 배려와 치료덕분에 현재는 보조기구 없이 다닙니다. 하체부분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치유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은 제 삶에도 생기를 넣어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DUMC NEWS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동국대학교, 제17대 오민구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취임

동국대학교의료원은 지난 2월 27일 제17대 의료원장 취임식을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취임식에는 성호 법인 사무처장 스님을 비롯해 이의수 서울캠퍼스 기획부총장, 각 병원장 및 교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오민구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취임사에서 “동국대학교의료원은 제2의 도약을 위해서 변화와 혁신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구성원 모두가 명심해야 한다.”며 “경기 북부와 경북 지역을 선도하는 의료원, 나아가 전국 10위권의 의료원을 향해서 다 함께 손잡고 나가자.”라고 포부를 밝혔다.



신경과 김동역 교수 연구팀, 국내 최초 뇌졸중 뇌 MR 영상 인공지능 진단시스템 개발 돌입

한국인 뇌 MR 영상데이터센터 김동역 교수 연구팀은 ㈜제이엘케이 인스펙션과의 기술협력을 통해 뇌졸중 뇌 MR 영상 인공지능 진단시스템 개발에 돌입했다.

김동역 교수는 지난해 3월 ㈜제이엘케이 인스

펙션과 산학협력 협약을 맺고 같은 과 류위선 교수를 포함한 연구팀과 함께 인공지능 영상 진단 시스템 개발 공동연구를 수행해 왔다. 김동역 교수 연구팀은 “식약청으로부터 의료기기 허가를 받아 임상에서 사용 가능한 영상 진단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방대한 규모의 뇌졸중 환자 MRI 데이터를 인공지능 의료서비스 플랫폼에 집중 학습시켰으며, 영상진단 정확도가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말했다.



위암 적정성 평가 2년 연속 1등급, 폐암 적정성 평가 3년 연속 1등급 획득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위암 적정성 평가와 폐암 적정성 평가에서 연속 최고 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다. 위암 평가는 지난 2015년 한 해 동안 원발성 위암으로 수술을 시행한 221개 만 18세 이상 환자의 진료 분을 평가하여, 18개 항목에서 전체평균 95.77점으로 최고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 또한, 폐암 적정성 평가는 폐암 진료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전국 123개 기관에서 원발성 폐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이번 평가결과에서 모두 100점으로 높은 점수를 받아 위암과 폐암 치료를 매우 잘하는 병원임을 입증했다.

‘지역 선도 의료기술 육성사업’ 선정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3월 27일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2017년 의료기술 육성사업 평가에서 최종 선정됐다.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지역선도 의료기술 육성사업평가는 14개 시도에서 22개의 사업을 신청 받아 최종 13개 시도의 13개 사업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선도 의료기술 육성사업은 지역의 잠재력 있는 대표 의료기술을 발굴하고 지역의 문화·관광자원과 결합하여 외국인 환자 유치 채널을 다양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0년부터 시행되어왔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경기도를 대표하여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경기북부를 대표하는 의료기관으로서 지역 의료관광 산업 활성화에 앞장설 계획이다.

‘차별 없는 세상 우리가 주인공’ 부처님 오신 날 기념 봉축법회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불기 2561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4월 19일 5층 대강당에서 동국대학교 이사장 자광 스님을 모신 가운데 특별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약 400여 명의 교직원과 환우들이 참석했으며, 식순에 따른 육법 공양과 함께 본원 1층 로비에서 환우들의 건강 발원을 기원하며 소원초 띄우기와 관불식을 진행했다. 이날 법문을 통해 자광 스님은 “모든 것은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마음은 창조의 근본이요 바탕이다.”라고 전하며 “어려서고 어두운 마음은 수겁 동안 쌓인 어두운 등굴과 같은 현재 우리의 마음이며, 모두 등불을 밝혀 밝은 지혜로운 인간으로 살아가 생로병사에서 벗어나고 탐욕에서 벗어나 살 수 있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스님은 “광명과 같은 밝은 마음으로 살아가길 염원한다.”라며 설법을 마쳤다.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브랜드파워 2위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은 지난 4월 16일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발표한 제19차 산업 브랜드파워 조사 한방병원 부문에서 전국의 250여개 한방병원 중 2위를 차지했다. 이번조사는 2016년 10월 중순부터 2017년 1월 중순까지 서울 및 6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남녀 1만2000명의 소비자를 대상 총 220개 산업 군에 대해 개별 면접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항목으로 브랜드의 가치와 신뢰여부, 재이용 가능성과 추천 의향, 호감도 등을 조사했다.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정지천 병원장은 “이번 성과는 동국대학교한방병원에 대한 전국적인 인지도 및 선호도가 상승한 결과이다.”고 전했다.

어린이날 기념 선물 전달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은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어린이 병동과 소아청소년과 외래를 방문하여 학용품과 과자 등 선물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는 병원에 입원 중인 어린 환우들의 빠른 쾌유와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는 것을 기원하며 자비와 희망도 함께 전달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지도법사 덕윤희 스님은 이날 포교사들과 함께 아이들을 찾아 선물을 전달했으며, 선물을 받은 부모와 아이들은 잠시 병마를 잊고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한편,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은 서울지역단 어린이청소년팀으로 구성된 후원단체로 매년 어린이날 방문 행사를 펼치고 있다.



고양시 건강박람회 체험 행사 펼쳐
동국대학교일산병원과 일산한방병원은 지난 4월 8일 고양시 주관으로 시행된 ‘고양시 건강박람회’에 참가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행사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스마트 건강 도시 고양, 미래를 만나다’라는 슬로건으로 고양시 소재 24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여 고양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열렸다. 이날 박람회에서는 ‘올바른 손 씻기 함께해요’라는 주제의 캠페인과 ‘전통의 힘, 한방으로 더 건강하게’라는 체험활동을 펼쳐 박람회에 참가한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동국 포털(PORTAL) 서비스 시스템 개편 시작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2016년 12월부터 시작된 본교 서울캠퍼스 정보처, 경주캠퍼스 정보관리실과 함께 동국 포털 서비스 시스템 개편을 지난 4월 3일 완료했다. 캠퍼스 포털시스템은 그룹웨어, uDRIMS(ubiquitous Dongguk's Renovated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등의 시스템 접근에 대한 통합 인증으로 사용자에게 편리성을 제공하는 등 권한 관리를 통한 보안을 강화하는 서비스로 구현되는 시스템이다. 동국 포털 서비스 시스템을 개편한 의료정보팀 담당자는 “앞으로도 교원, 직원, 학생, 연구원, 조교 등의 다양한 사용자별 맞춤 서비스를 통해, 구성원 간의 협업과 정보 공유를 활성화 하는데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DUMC NEWS

동국대학교경주병원 동국대학교경주한의원

외과계중환자실 새단장 오픈

외과계중환자실이 4월 10일 새단장 오픈식을 열었다. 이날 병원장을 포함한 주요 보직자들이 참석하였으며, 새롭게 단장한 중환자실을 축하하는 자리가 되었다. 외과계중환자실은 2015년 4월 1일 폐쇄하였으며, 이번 새단장 오픈은 중환자실 환자 수 증가로 총 10Bed를 오픈했다. 나득영 병원장은 “새롭게 오픈한 만큼 의료진 및 간호사 등 전 교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며 당부했다.



방사선수술팀 고정밀 뇌정위 방사선 수술 본격 시행

지난 3월 18일 동국대학교병원 방사선수술팀은 고정밀 뇌정위 방사선수술로 70대 뇌종양 환자를 성공적으로 치료했다. 뇌정위 방사선수술은 두 개강내 병변(종양)의 위치를 3차원으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뇌정위장치치를 이용하여 고선량의 방사선을 여러 방향에서 집중 조사하는 치료방법으로 다양한 뇌질환 치료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장현수 교수는 “방사선수술은 각종 뇌질환 치료에 상당히 효과적이지만, 경북지역에서

이를 시행하는 병원은 없었으며,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이 본격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지역민들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뇌병변 치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입 간호사 돌 축하잔치

4월 7일 힐링홀에서 신입간호사 41명을 대상으로 돌 축하잔치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돌 동이들의 소개 및 소감 발표, 축하동영상, 나에게 쓰는 편지, 선물 증정 등 다채로운 시간을 가졌다. 나득영 병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힘들겠지만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여 활기찬 근무환경을 조성하길 바라며, 자신의 건강도 잘 챙기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입원환자 생일 축하 이벤트 시행

입원 중 병원에서 생일을 맞이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3월 6일부터 생일축하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생일을 맞은 환자에게는 당일 아침식사에 미역국이 나오며 작지만 정성을 담은 생일 축하카드를 전달한다. 또한 네임카드에 생일 표시를 하여 이날 환자를 방문하는 의료진 및 간호사들은 생일축하 인사를 한다. 뜻하지 않게 생일상을 받은 환자들은 고마움에 감사하다는 말을 아끼지 않았다.

전립선 건강강좌 및 무료진료 다녀와
비뇨기과팀(서영진, 이경섭, 권세윤)은 대한전립선관리협회 및 경주시 보건소, 국제로타리클럽과 공동으로 지난 3월 11일 경주시 주민

건강지원센터에서 지역민 대상 전립선 건강강좌 및 무료진료를 시행했다. 경주시는 노인 인구가 많은 관계로 전립선비대증 및 전립선암 환자의 빈도가 타 도시에 비해 높은 편이다. 이날 진료소에는 650여 명의 지역민들이 참여하여 검진을 받았으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DUMC NEWS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건강보험 시범적용에 따른 추나치료 활성화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2017년 2월 13일부터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 실시되었다.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은 경기도내 2곳 중 한곳으로 이번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올해부터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실시하게 된다. 추나요법은 척추관절 비수술 한방치료법중 하나로 척추에 나타나는 통증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제거하여 재발을 방지하는 안전하고 과학적인 치료법이다.

전화응대 시뮬레이션 교육 실시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은 전직원을 대상으로 전화응대 시뮬레이션 교육을 실시했다.

직원들에게 각각의 상황을 공지하고 적절한 응대와 부적절한 응대를 구분하여 실제 역할극을 해 보고, 실습 후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발생 가능한 상황에 적절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번 교육을 통하여 직원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응대해야할지에 대한 좋은 모범답안을 찾게 되어 교육 결과에 대한 만족도도 높았다.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전화응대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고객에게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환우를 위한 작은 음악회

국립국악고 학생들로 편성된 국악봉사단이 3월 11일 1층 병원 홀에서 입원환자들을 위한 국악공연을 실시하였다. 판소리, 창가, 해금, 아쟁, 가야금, 거문고, 피리 등 다양한 국악연주를 감상한 입원환자들은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소리를 연주해준 학생들을 칭찬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국악연주 봉사를 한 학생들도 입원하고 계신 환자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빨리 퇴원하시길 바란다고 밝은 미소로 다음 연주회를 약속했다.



DUMC NEWS

동국대학교의과대학
동국대학교한 의과대학

신규 연구활동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지난 4월 17일 경주의학관 대학원세미나실에서 신규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연구실 안전교육이 실시되었다.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 의학전문대학원은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규채용된 연구활동 종사자에게 주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부 구성원들은 온라인 교육 및 오프라인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연구실 및 실험실에서 안전한 교육 및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시신기증자를 위한 감사와 배움의 법회

시신 기증자를 위한 감사와 배움의 법회가 4월 6일 동국대학교경주병원 법당과 의과대학 해부학실습실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법회에서는 동국대학교 의과대학에 시신을 기증해주신 분

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고취시키고 기증의 공덕으로 내생에 좋은 곳에 태어나기를 기원하기 위해 개최 되었다. 동국대학교경주병원 법당에서 시신 기증자를 위한 위령제와 부처님께 고하는 법회를 시작으로 의과대학 해부학실습실로 이동 후 ‘장엄염불’과 ‘무상계’를 봉독하며 마무리 되었다.



신흥묵 원장, 국민훈장 수훈

신흥묵 한약진흥재단 원장이 제45회 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목련장의 영예를 얻었다.
이날 기념식에서 신흥묵 원장은 국가한약산업을 총괄할 보건복지부 산하 유일한 한의약 관련 국가기관인 한약진흥재단 원장으로 한의약 신기술 개발 및 과학화 · 표준화를 통해 국가 보건의료산업 성장 및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훈했다.

신흥묵 원장은 "한약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한의임상진료 정보화 사업을 구체화 하고, 이를 통해 맞춤형 지원 등 한의 의료서비스의 혁신과 자가 건강관리 정보 제공의 틀을 마련해 궁극적으로 국가 건보재정 안정화 기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병욱 교수, 보건복지부 장관상

이병욱 교수가 “한 의과대학 교수로서 한 의과대학 교육 인증평가 정착과 한방 의료기기 분야의 산업화에 기여한 유공자”로 인정받아 한의사협회의 추천으로 보건복지부 장관표창을 받았다.
이병욱 교수는 한 의과대학 교육 평가인증 기준 정립하고, 충전식 전자담 관련 특허를 활용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기로 개발하여 산업화했으며, 한의학의 정보화 관련 연구 활동을 인정받아 수상하게 되었다.

동국대학교의료원의 발전을
염원하는 큰 뜻 !
자비 나눔으로 동참해주십시오.



동국대학교의료원과 함께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동행,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의 숭고한 뜻에 보답하기 위해 동국대학교의료원은 약사여래부처님의 12대원을 실천하고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발전기금 사용처

- 의료, 교육 환경 개선
- 의료장비, 임상실험 기자재구입 등
- 학술연구, 장학기금
- 불우환자 지원
- 기타 병원 및 의과대학, 한 의과대학의 발전

발전기금 안내

- 동국대학교의료원을 아껴주시는 분은 누구나 참여 하실 수 있습니다.
- 후원금은 현금, 주식, 기타자산이나 부동산, 귀중품 등 어떠한 형태로도 가능합니다.
- 기부하신 후원금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후원금은 우선 약정하시고 추후 납입하셔도 됩니다.

기부자 예우

구 분		의료비 감면					
		건강검진 (년 1회)	진료비 (외래입원 본인부담금)	주치의	한방보약	영안실	비 고
회원예우	누적기부총액	본인(배우자)	본인(배우자)	본인	본인(배우자)	본인(배우자)	(진료비 무료 연간 적용기간)
다이아몬드	50억	무료(무료)	무료(50%)	배정	무료(50%)	무료(무료)	연간 180일 이내(입원)
에메랄드	10억	무료(무료)	무료(50%)	배정	50%(50%)	무료(무료)	연간 90일 이내(입원)
사파이어	5억	무료(무료)	무료(20%)	배정	50%(30%)	50%(50%)	연간 90일 이내(입원)
루비	1억	50%(50%)	20%(20%)		20%(20%)	30%(30%)	
도세/자애	5천만원	30%(20%)	20%		20%(20%)	20%(20%)	
신실/섭심	1천만원	20%(20%)	15%		20%(20%)		
1백만원			10%				

1. 상기 내용 중 배우자는 기부자 생존시까지로 한정됩니다.
2. 영안실은 시설사용료에 한하며, 상기 내용 중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기관에서 따로 정한 바에 따릅니다.
3. 진료비와 한방보약의 감면은 별도로 적용되며, 한방보약은 직접복용 이외의 목적으로 처방받을 수 없습니다.

후원 문의

동국대학교의료원 전략기획팀 대외협력담당
▶ TEL 031. 961. 5712 FAX 031. 961. 5719 e-mail dumcco@dumc.or.kr

동국대학교일산병원 ·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CS경영팀
▶ TEL 031. 961. 9361 FAX 031. 961. 9369 e-mail kingdom@dumc.or.kr

동국대학교경주병원 · 동국대학교경주한의원 기획예산팀
▶ TEL 054. 770. 8126 FAX 054. 770. 8500 e-mail dumccs@dumc.or.kr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원무팀
▶ TEL 031. 710. 3718 FAX 031. 710. 3780 e-mail dumcbh@dumc.or.kr

나눔의 동행



故 현광 스님,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발전을 위해
8억 원 상당 부동산 쾌척

지난 4월 3일 입적하신故 현광 스님께서는 열반하시기 전인 2월 20일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발전을 위해 써달라며 8억 원 상당의 토지와 건물을 쾌척했다.
이번에 기부된 토지는 스님이 평생 모아 온 사유재산으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소재의 토지와 건물이며, 시가로 8억 원 상당에 이른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회에 회향하고 불교계와 지역발전에 힘을 보태고자 전 재산을 기부한 현광 스님은 운문사 명성스님을 은사로 모셨으며, 스님은 이날 약정에 앞서 “토지와 건물은 동국대학교병원의 발전과 병원 운영방침에 따라서 활용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스님의 아름다운 회향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며 귀중한 뜻에 따라 본원 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다.

동국대학교의료원에 아낌없는 후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7. 2. 1 ~ 2017. 4. 30

현 광 스 님	552,727,100	범 종 스 님	3,000,000	박 수 자	1,000,000
혜 선 스 님	30,000,000	이 명 규	1,500,000	최 진 원	1,000,000
(사)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3,456,240	홍 려 암	1,500,000	유진메디랩(주)	1,000,000
한국심장재단	3,403,570	기 형 스 님	1,200,000		
(사)생명나눔실천본부	3,000,000	동국대학교법인사무처	1,000,000		

강구욱	김경옥	김상규	김윤희	김태로	디케이 메디칼 솔루션	박완임	배성익	손민표	안희덕	유형주	이상형	이정하	임철호	정우식	조혜영	최은정	허정현
강길중	김경호	김서민	김율리	김필자		박용수	배수현	손정근	양경수	윤병일	이선아	이정화	임춘화	정운영	조혜원	최인영	허희진
강보라	김경희	김석순	김은미	김하경	라은미	박용진	배주현	손정은	양경순	윤복연	이선자	이정희	임화실	정원기	조혜정	최인주	현경석
강석진	김계철	김선경	김은애	김하나	류대안	박원환	배효상	손정화	양성빈	윤수임	이선희	이제성	자비나	정윤정	조혜진	최재욱	현미숙
강순엽	김광기	김선주	김은영	김한성	류윤호	박유경	백민숙	손주연	양유리	윤시우	이소영	이종득	눔ARS	정은경	조혜진	최재욱	해철삼
강연주	김국현	김선희	김은정	김해민	명수님	박은경	백용해	손주영	양지영	윤광경	이수경	이종철	자비나	정이선	조효순	최재원	홍민재
강지영	김군삼	김성겸	김은정	김해정	모종은	박인희	백유진	손효정	양진호	윤재문	이수라	이종희	눔세상	정인영	조희남	최정민	홍사란
강희주	김금희	김성권	김은주	김현서	무구님	박일항	백운정	손희진	엄희경	윤정미	이수림	이주영	장대현	정인원	주선호	최정숙	홍성양
게선님	김금희	김성원	김은희	김현정	문병모	박재경	방성열	송동현	여민영	윤정순	이수영	이주은	장동기	정재우	주순호	최종기	홍수민
고기연	김기영	김세민	김용중	김형관	문주연	박재숙	송사팀 (일상불 교병원)	송보리	여민혁	윤정원	이수현	이주은	장민욱	정재현	주은영	최종민	홍수진
고기환	김남희	김세희	김익환	김형서	문효남	박재윤	송혜정	여현님	윤지영	이소애	이주현	장수빈	정지유	주순환	최준옥	홍승욱	
고유삼	김다라	김소원	김인수	김혜정	민상연	박재희	변재란	송가의	여취경	윤지은	이소희	이준길	장순자	정지천	(주)눔 간병인 협회	최지윤	홍은기
고은미	김태영	김솔아	김일수	김혜미	박경자	박정숙	변재옥	료ARS	염윤정	윤 탁	이슬기	이지연	장연화	정지혜	한병민	최진영	홍은수
곽범석	김덕태	김수익	김재경	김혜정	박경철	박정익	보광님	신경민	염주홍	윤혜진	이승욱	이지영	장유민	정진희	(주)민 코팩스	최창익	홍이내
구남이	김덕희	김수정	김재선	김혜진	박 관	박정화	불광사	신경수	오미숙	윤홍식	이승철	이지영	장인규	정하영	코팩스	최창익	홍이내
구병수	김도연	김숙애	김재은	김호준	박기호	박종현	상 지	신경희	오미정	윤희영	이애영	이지원	장종섭	정한숙	지영한	최한석	홍종숙
구복식	김도연	김순만	김재형	김홍범	박대희	박주연	메디칼	신광배	오민구	이강현	이열희	이지은	장태영	정현정	진경애	최해웅	홍주혜
구수연	김도현	김순애	김정미	김희영	박동우	박주영	서경진	신나리	오성은	이경미	이영실	이지혜	장호근	정혜은	진영숙	최혜숙	황보수진
구수점	김동규	김순자	김정민	김희진	박동진	박주현	서미경	신동환	오유나	이경민	이영일	이진호	전종금	정호근	차유련	최희정	황유자
구준범	김동일	김시연	김정숙	나경란	박명조	박 준	서영덕	신숙향	오유주	이경애	이영찬	이창목	전주영	정희창	차윤기	추경희	황정희
국종돈	김미라	김연자	김정숙	나용용	박미순	박준재	서영문	신영사	오정미	이광규	이옥진	이채원	전진영	정희채	차필선	하정희	
권경순	김명숙	김영미	김정순	남기문	박미형	박지숙	서영진	신용현	오종현	이광훈	이완재	이태영	전진영	조경식	채기수	하현지	
권기훈	김명제	김영미	김정화	남기연	박보경	박지혜	서 은	신윤주	오진숙	이구슬	이용찬	이태현	정경숙	조경애	채봉희	한경민	
권도윤	김명희	김영복	김정훈	남순미	박상은	박진우	서재연	신은재	오창희	이귀숙	이윤경	이학철	정경식	조계종	채석래	한국실업 애경재단	
권동춘	김문선	김영선	김종민	남유희	박서연	박찬규	서재일	신은정	오창희	이규옥	이원상	이항민	정경윤	사회복 재은미	채은미	한득수	
권동현	김문식	김영숙	김종은	남현미	박석원	박찬현	서 준	신은희	오필홍	이나현	이원숙	이항미	정경철	지재단	최경아	한명희	
권두경	김문식	김영순	김종혜	남현숙	박선양	박창훈	서준서	신주희	왕지혜	이동영	이원호	이현경	정규호	조동숙	최동준	한미정	
권범선	김미경	김영옥	김주광	남혜경	박선옥	박철종	서희주	신현모	우상범	이동욱	이유나	이현정	정다영	조문희	최명렬	한미진	
권병철	김미숙	김영은	김주현	남혜경	박성림	박현미	석상원	신현주	원상복	이동한	이윤상	이현희	정명동	조민주	최문전	한미진	
권삼숙	김미숙	김영자	김주희	남화연	박성미	박현숙	선우현	신혜란	유갑순	이두분	이은경	이형경	정만님	조상은	최문희	한 불 애지지	
권성욱	김미영	김영진	김지예	남희련	박성원	박현숙	선춘옥	심규용	유묘상	이말보	이은미	이혜영	정미라	조성민	최병곤	관리(주)	
권수민	김미영	김영희	김지현	노규호	박성주	박현영	설동경	심영진	유선영	이명경	이은일	이효정	정미라	조승호	최봉용	한송이	
권오형	김미진	김옥동	김진우	노미경	박성주	박현주	설함미	심혁진	유세정	이명종	이은주	인승순	정민경	조영순	최상돈	한영희	
권윤경	김민선	김옥선	김진우	노태훈	박성혜	박현주	성나진	썬양초	유소라	이무용	이은하	인준용	정민기	조용진	최서영	한윤용	
권원진	김민아	김용우	김차기	도진님	박세진	박해진	성효은	안금자	유은정	이문석	이자경	일장님	정사라	조윤미	최성호	한윤희	
권재현	김민철	김용배	김창기	도한호	박수연	박호석	소선기	안성희	유인협	이문정	이재섭	임군일	정석화	조윤정	최소영	한윤희	
권태용	김민호	김용숙	김철주	동국대 경주병원	박수인	박효진	소은진	안숙자	유정임	이미영	이재우	임선희	정선희	조은영	최수연	한은숙	
권효숙	김민희	김용식	김춘자		박숙희	박희철	소정자	안연순	유정화	이미희	이재환	임수완	정숙희	조정숙	최수진	한재성	
권희경	김병철	김운성	김치선	동국대 병원	박수자	방광환	소형연	안영길	유정희	이민우	이재환	임시진	정승택	조정아	최예진	한정훈	
권희재	김병철	김유미	김태식	동국대 병원	박수자	방광환	소은진	안숙자	유정화	이미희	이재환	임시진	정승택	조정아	최예진	한정훈	
권희재	김병철	김유미	김태식	동국대 병원	박수자	방광환	소형연	안영길	유정희	이민우	이재환	임시진	정승택	조정아	최예진	한정훈	
권희재	김병철	김유미	김태식	동국대 병원	박수자	방광환	소형연	안영길	유정희	이민우	이재환	임시진	정승택	조정아	최예진	한정훈	
권희재	김병철	김유미	김태식	동국대 병원	박수자	방광환	소형연	안영길	유정희	이민우	이재환	임시진	정승택	조정아	최예진	한정훈	
권희재	김병철	김유미	김태식	동국대 병원	박수자	방광환	소형연	안영길	유정희	이민우	이재환	임시진	정승택	조정아	최예진	한정훈	
권희재	김병철	김유미	김태식	동국대 병원	박수자	방광환	소형연	안영길	유정희	이민우	이재환	임시진	정승택	조정아	최예진	한정훈	
권희재	김병철	김유미	김태식	동국대 병원	박수자	방광환	소형연	안영길	유정희	이민우	이재환	임시진	정승택	조정아	최예진	한정훈	
권희재	김병철	김유미	김태식	동국대 병원	박수자	방광환	소형연	안영길	유정희	이민우	이재환	임시진	정승택	조정아	최예진	한정훈	
권희재	김병철	김유미	김태식	동국대 병원	박수자	방광환	소형연	안영길	유정희	이민우	이재환	임시진	정승택	조정아	최예진	한정훈	
권희재	김병철	김유미	김태식	동국대 병원	박수자	방광환	소형연	안영길	유정희	이민우	이재환	임시진	정승택	조정아	최예진	한정훈	
권희재	김병철	김유미	김태식	동국대 병원	박수자	방광환	소형연	안영길	유정희	이민우	이재환	임시진	정승택	조정아	최예진	한정훈	
권희재	김병철	김유미	김태식	동국대 병원	박수자	방광환	소형연	안영길	유정희	이민우	이재환	임시진	정승택	조정아	최예진	한정훈	
권희재	김병철	김유미	김태식	동국대 병원	박수자	방광환	소형연	안영길	유정희	이민우	이재환	임시진	정승택	조정아	최예진	한정훈	
권희재	김병철	김유미	김태식	동국대 병원	박수자	방광환	소형연	안영길	유정희	이민우	이재환	임시진	정승택	조정아	최예진	한정훈	
권희재	김병철	김유미	김태식	동국대 병원	박수자	방광환	소형연	안영길	유정희	이민우	이재환	임시진	정승택	조정아	최예진	한정훈	
권희재	김병철	김유미	김태식	동국대 병원	박수자	방광환	소형연	안영길	유정희	이민우	이재환	임시진	정승택	조정아	최예진	한정훈	
권희재	김병철	김유미	김태식	동국대 병원	박수자	방광환	소형연	안영길	유정희	이민우	이재환	임시진	정승택	조정아	최예진	한정훈	
권희재	김병철	김유미	김태식	동국대 병원	박수자	방광환	소형연	안영길	유정희	이민우	이재환	임시진	정승택	조정아	최예진	한정훈	
권희재	김병철	김유미	김태식	동국대 병원	박수자	방광환	소형연	안영길	유정희	이민우	이재환	임시진	정승택	조정아	최예진	한정훈	
권희재	김병철	김유미	김태식	동국대 병원	박수자	방광환	소형연	안영길	유정희	이민우	이재환	임시진	정승택	조정아	최예진	한정훈	
권희재	김병철	김유미	김태식	동국대 병원	박수자	방광환	소형연	안영길	유정희	이민우	이재환	임시진	정승택	조정아	최예진	한정훈	
권희재	김병철	김유미	김태식	동국대 병원	박수자	방광환	소형연	안영길	유정희	이민우	이재환	임시진	정승택	조정아	최예진	한정훈	
권희재	김병철	김유미	김태식	동국대 병원	박수자	방광환	소형연	안영길	유정희	이민우	이재환	임시진	정승택	조정아	최예진	한정훈	
권희재	김병철	김유미	김태식	동국대 병원	박수자	방광환	소형연	안영길	유정희	이민우	이재환	임시진	정승택	조정아	최예진	한정훈	
권희재	김병철	김유미	김태식	동국대 병원	박수자	방광환	소형연	안영길	유정희	이민우	이재환	임시진	정승택	조정아	최예진	한정훈	
권희재	김병철	김유미	김태식	동국대 병원	박수자	방광환	소형연	안영길	유정희	이민우	이재환	임시진	정승택	조정아	최예진	한정훈	
권희재	김병철	김유미	김태식	동국대 병원	박수자	방광환	소형연	안영길	유정희	이민우	이재환	임시진	정승택	조정아	최예진	한정훈	
권희재	김병철	김유미	김태식	동국대 병원	박수자	방광환	소형연	안영길	유정희	이민우	이재환	임시진	정승택	조정아	최예진	한정훈	
권희재	김병철	김유미	김태식	동국대 병원	박수자	방광환	소형연	안영길	유정희	이민우	이재환	임시진	정승택	조정아	최예진	한정훈	
권희재	김병철	김유미	김태식	동국대 병원	박수자	방광환	소형연	안영길	유정희	이민우	이재환	임시진	정승택	조정아	최예진	한정훈	
권희재	김병철	김유미	김태식	동국대 병원	박수자	방광환	소형연	안영길	유정희	이민우	이재환	임시진	정승택	조정아	최예진	한정훈	
권희재	김병철	김유미	김태식	동국대 병원	박수자	방광환	소형연	안영길	유정희	이민우	이재환	임시진	정승택	조정아	최예진	한정훈	
권희재	김병철	김유미	김태식	동국대 병원	박수자	방광환	소형연	안영길	유정희	이민우	이재환	임시진	정승택	조정아	최예진	한정훈	
권희재	김병철	김유미	김태식	동국대 병원	박수자												

기부자 인적사항

성 명 (기관명)	(대표자 :)	☐ 익명요청 (모든 홍보물에 익명으로 표시)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생년월일 년 월 일 (양/음)
본 의료원과의 관계 (※ 중복 체크 가능)	☐ 일반 ☐ 불교계 ☐ 교직원 ☐ 동문 (입학년도 : 대학(원) : 전공 :)	☐ 기업/단체 ☐ 기타 ()
직장명	부서	직위
우편물 수령주소 (우편번호 —)		☐ 자택 ☐ 직장
휴대폰번호	유선전화	
이메일	기부 추천인	

약정

약정액	현금	원 (₩)	)	☐ 현물기부(	원)상당
약정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월()원씩 / 총()회
기부금 용도	☐ 의료원발전기금위원회 일임 ☐ 병원발전기금 (☐ 일산병원 ☐ 경주병원 ☐ 분당한방병원) ☐ 학교발전기금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 지정기금 (지정)				
기부의견					

납부방법

본인 자동이체 신청	월정기납 : 매월 ()일	예금주 : 이체은행 :
본인 자동이체 신청은 본인이 직접 은행에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가까운 은행에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무통장입금	입금방법 (☐ 일시납 ☐ 분납)	입금자명 :
☐ 입금계좌 : 국민은행 778037-00-000011		예금주 : 동국대학교의료원(일산)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202-076965		예금주 : 동국대학교의료원(경주)
☐ 입금계좌 : 국민은행 368137-01-001162		예금주 : 동국대학교의료원(분당)
급여공제	사번 : (※ 재직 교직원에 한함)	

위와 같이 기부(약정)합니다.

20년 만에 일

기부(약정)인 : 서명(인)

동국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귀하

보내는 분

주소

연락처

받는 사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32

동국대학교의료원

전략기획팀 대외협력담당

10326

건강하고 행복한 **동행** 동국대학교의료원 MAGAZINE
2017 Summer | VOL. 11



우리는 대개 화의 파괴의 원인이 바로 전쟁을 일으키는 원인을 찾는 데서, 또, 전쟁을 일으키는 원인을 화의 파괴의 원인으로 보는 데서, 옳.

세계의 문화유산

나눔은 근혜의문 품목



이곳에 풀칠하세요.



Life Care Partner

동국대학교병원 **건강검진 프로그램**

건강은 타고 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사람의 선택에 의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각 진료과 전문 의료진과 최첨단 의료장비로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지향
- 동서양 의학 접목을 통해 각 개인별로 차별화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적용
- One stop system 건강진단 실시로 당일 건강진단 후 신속한 당일결과 상담(판정) 가능
- 고객이 선택 가능한 다양한 건강검진 프로그램
- 건강검진 후 위험인자나 질병 발견 시 지속적인 사후관리

동국대학교일산병원 ·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건강증진센터 건강검진 프로그램

기본검진	기본종합검진은 비교적 건강한 일반 성인에게 필요한 검사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다른 특별한 건강상 문제없이 건강관리를 희망하시는 분들께 권해드립니다.
정밀검진	기본형에 추가로 소화기질환, 심혈관질환, 폐질환, 그리고 남성 및 여성 질환, 성인병 예방 및 발병률이 높은 각종 임에 대한 조기검진을 위한 고급형 검진 프로그램입니다.
프리미엄 숙박검진	다양하고 정밀한 검사항목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으로 짧은 시간에 검사하기 어려운 노약자, 지방거주자 및 편안하고 여유롭게 검사하고자 하는 수검자에게 유용한 프로그램입니다.
생애주기별	예비신랑·신부검진, 청소년검진, 장수검진 등 생애 주기별 질환을 체크할 수 있는 맞춤 검진 프로그램입니다.

상담 및 예약

031.961.7700, 7699, 7698 인터넷 ▶ <http://www.dumc.or.kr/hpc/> 예약시간 ▶ 평일 오전 8시 ~ 오후 4시

동국대학교경주병원 국제힐링센터 건강검진 프로그램

기 본 종합검진	기본종합검진은 비교적 건강한 일반 성인에게 필요한 검사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다른 특별한 건강상 문제없이 건강관리를 희망하시는 분들께 권해드립니다.
프리미엄 종합검진	기본형에 추가로 소화가질환, 심혈관질환, 폐질환, 그리고 남성 및 여성 질환, 성인병 예방 및 발병률이 높은 각종 암에 대한 조기검진을 위한 고급형 검진 프로그램입니다.
플래티늄 종합검진	프리미엄 종합검진에 뇌혈관질환까지 확인할 수 있는 VVIP를 위한 가장 최고급 종합검진입니다. 주요 암질환과 각종 위험인자를 광범위하게 정밀진단하는 최상의 프로그램입니다
특 화 종합검진	가족력, 이력 등에 따른 특화된 검진으로 개개인 질환을 체크할 수 있는 맞춤 검진 프로그램입니다.

상담 및 예약
054. 770. 1430~3
인터넷 ▶ <http://www.dumc.or.kr/gj>
예약시간 ▶ 평일 오전 8시 30분 ~ 오후 5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문의

동국대학교일산병원 · 일산한방병원 031-961-7955 동국대학교경주병원 · 경주한의원 054-770-1400~1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031-710-3712/3781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대표전화 1577. 7000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7

동국대학교경주병원
동국대학교경주한의원

대표전화 054. 748. 9300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동대로 87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대표전화 031. 710. 3700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268

동국대학교의과대학
동국대학교의학전문대학원

대표전화 054. 770. 2114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동대로 123

동국대학교한의과대학

대표전화 054. 770. 2114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동대로 123



동국대학교의료원은 고객과 자비 중심의
건강한 미래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동행**

동국대학교의료원 MAGAZINE
2017 Summer VOL.11

발행인 오민구

발행처 동국대학교의료원

발행일 2017년 6월 1일 (통권 11호)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7

대표전화 1577 · 7000

홈페이지 www.dumc.or.kr

기획·편집·디자인 동국대학교의료원 편집위원회

일러스트레이션 필몽

인쇄 (주)신화프린팅 031 · 905 · 2727